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89.56	↓ 코스닥	708.21
	(-26.22)		(-9.68)
↑ 금리 (연이자율)	2.664	↑ 환율 (원/달러)	1470.35
	(+0.103)		(+5.35)



## 초코파이 신화서 바이오 혁신 ADC 개발로 글로벌 제2 도약

〈항체약물접합체〉

### 영리더 경영 리포트

유통·식품업계의 오너 3세 경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 오리온, 농심 등은 3세 경영인을 고위직에 기용했다. 또 한화 오너가 3세 김동선 부사장과 전병우 삼양라운즈스퀘어 전략기획부문장(상무)도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MZ 오너'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기존 오너 1, 2세대가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성공 신화를 일궈왔다면, 이들 오너 3세대들은 글로벌 시장 확대와 바이오와 소재 등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트로 경제는 시리즈를 통해 업계 오너 3세대가 주도하는 사업과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 1 오리온 담서원 전무

입사 3년 5개월 만에 전무 승진 리가캠바이오 인수 직접 참여 ADC 개발로 제약·바이오 공략 H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도

제과업계 1위 오리온은 1956년 설립 이후 초코파이를 필두로 '꼬북칩' '초코송이' '후레쉬베리' 등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며 국내 제과산업에 이끌려왔다.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수 소비가 침체되자



담서원 전무  
오리온 한국 법인 경영지원팀

해외 사업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7년 글로벌 식품·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음료, 간편대용식, 바이오 등 3대 신규 사업의 성장체제를 확립해 제2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담철곤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담서원 전무는 오리온의 차세대 리더로서 그룹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신사업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리가캠바이오 인수를 추진하며 기업의 체질전환에 기여했다.

오리온은 '2025년 임원정기인사'를 통해 한국법인 경영지원팀 담서원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1989년생인 담 전무는 뉴욕대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학위, 베이징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카카오엔

터프라이즈에서 2년간 근무한 뒤 2021년 오리온 경영관리파트 수석부장으로 입사했다. 2023년 경영지원팀 상무로 승진했으며, 입사 후 3년 5개월만에 전무를 맡았다.

담서원 전무는 그룹의 사업전략 수립과 관리, 글로벌 사업 지원, 신수종 사업 등 경영전반에 걸친 실무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계열사로 편입된 리가캠바이오의 사내이사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오리온의 전사적 관리시스템(ERP) 구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1월 약 5500억원을 들여 리가캠바이오 지분 25%를 확보했으며 3월 지분 25.73%에 대한 주식대금 5485억원을 지불하고 리가캠바이오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실제로 담 전무는 인수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가캠바이오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ADC(항체약물접합체)를 개발하는 회사로, ADC는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하는 분야다.

오리온은 리가캠바이오 인수를 통해 그룹의 연구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리가캠바이오의 핵심 후보물질 중 일부는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무서운 외식물가... "점심 먹기 겁나네"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 앞에 판매되는 음식 종류가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117.38)보다 3.1% 상승했다.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3년 연속 3%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성비 좋기로 알려진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등도 가격이 올랐고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 물가도 상승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한 외식 메뉴 가격 상승과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올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

## '3자 국정협의회' 가동 임박 崔 대행, 경제4법 처리 당부

최상목, 여야 대표 차례로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조속 통과 촉구

정부와 여당·야당으로 꾸려지는 이른바 '3자 국정협의회'의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정 협의회 가동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최대행 체제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의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비대위원장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무

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행은 "제1 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을 거론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역시 최대행의 제의에 화답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계류법안 7건을 언급하고 이른바 '조세개편 과제 3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고, 비상시국 속에서도 여야의 합심을 촉구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트럼프 눈치보는 빅테크, DEI 정책 줄폐기

대통령 취임 앞두고 관계개선 총력  
메타 'DEI 정책' 종료, 애플은 유지  
아마존도 다양성 확보 축소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변화에 발맞춰 '눈치 보기'에 나서고 있다. 다양성·공정성·포용성(Diversity·Equity·Inclusion, DEI)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EI 정책 폐지 움직임...정치적 변화 수용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

면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메타는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고용, 훈련, 공급 업체 선정 등에 시행하던 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역시 지난달 직원 메모를 통해 2024년 말까지 다양성 확보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DEI 정책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확산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 흐름 속에서 미국 기업들이 도입한 것으로, 인종,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자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판결한 이후 보수 진영은 DEI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다며 압박을 강화해왔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DEI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반면, 애플은 DE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 메트로 한줄뉴스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박찬대, 암참 회장 만나 "민주, 한미동맹 누구보다 중시"  
/사진 뉴스

▲이준석 "尹 투항하라" 확성기 틀자... LA산불 메시지 낸 건 존재과시용"  
▲여, 의총서 비상경제특검 논의... "내란·외환특검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이재명 '선거법 2심' 변호인단 일부 사임... "개인·로펌 사정"  
▲이준석, 허은아 향해 "느낌 말고 구체적 사안 얘기하면 돼"

# 현지법인 세우고, 기업 인수... 증권사, 글로벌 영토 넓힌다

글로벌 시장서 韓 비중 1.6% 불과  
업계,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 속도

미래에셋증권, 인도 '쉐어칸' 인수  
한국투자, 칼라일 그룹과 파트너십  
한화투자, 인니 칩타다나증권 인수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새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2035조45억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356조11억원이다. 원·달러 환율을 1470원으로 환산하면 두 지수의 시총 합은 약 1조6269억 달러(약 2391조5715억원)로, 이는 현재 글로벌 1위 시가총액을 보유한 애플(약 3조9029억 달러)의



여의도 증권가.

/손진영 기자 son@

약42%가량에 해당한다.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는 1.6%로 규모로는 세계 14위 정도다.

국내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증권업계에서는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공략이 활발해지고 있다.증권사들은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

크 구축을 위해 외국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우선 현지 진출을 통해 각국의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인도 10위 증권사에 해당하는 현지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해 '미래에셋쉐어칸'을 출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칼라일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금융사 앵커리지캐피탈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부족한 자본을 현지 주요 회사들과 협력해 보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열었던 민관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국내 주식 시장과 회사채·국채 등을 모아도 규모가 전 세계의 1%대에 그치고 나머지 99%는 해외에 있다"며 "국내 개인 자산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국내 상품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글로벌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글로벌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9월말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인수 절

차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안으로 '칩타다나자산운용'의 인수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서학개미'의 증가세로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글로벌 증권사들을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만큼, 역으로 한국 증권사들도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 투자자들 위해 현지 진출을 해놓는 것은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필수 요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설비투자 줄이고 합작법인 세워 '건축경영'

### 배터리 소재업계

에코프로, 중과 인니에 생산법인 설립  
포스코퓨처엠, 합작공장 투자 중단  
일부 자산 매각, 재무구조 개선 집중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올해도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배터리 소재기업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비 코미스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 9일 기준 1kg당 72위안을 기록했다. 리튬 가격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1월 1kg당 581.5위안까지 상승했으나,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리튬 가격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임기 동안 전기차 산업의 회복이 뚜렷하지 않다는 추측에서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들이 4분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래깅 효과'가 지목된다. 역래깅 효과는 비싼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실적



포스코퓨처엠 광양 사업장.

/포스코퓨처엠

추정치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연간 매출 2조8692억원, 영업손실 38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총 106억 원 규모의 흑자를 거둔 뒤 3분기 412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4분기에도 적자 폭 축소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엘앤에프는 지난 1~3분기 누적 360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3년 연간 영업손실 2201억원을 넘어섰다. 4분기는 942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진단된다.

포스코퓨처엠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포스코퓨처엠은 4분기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전기차 가격인하가 판매량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제시되는 만큼,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창이다. 영업이익률 확보를 위한 방향성은 결국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원가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업계는 설비투자 규모 축소와 재무 채력 확보에도 집중할 전략이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광물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G

EM과 협력해 제련,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설비투자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1조원 내외로 축소하고 양극재 공장 준공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퓨처엠은 합작공장 투자를 중단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며 재무 구조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북미시장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를 중장기 성장 요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V 수요 회복 정도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회복 가능 여부가 중장기 성장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리튬 사업 철수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리튬 가격은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4분기에도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기에 현재 겪고 있는 캐즘이 지나면 시장이 성장하고 성숙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4분기 실적 SKT·LGU+ '웃고' KT '울고'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선방'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4분기에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은 다소 엇갈릴 전망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조5668억원과 영업이익 3453억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 16.2% 증가한 수준이다.

SKT는 올해도 AI를 중심으로 한 수익화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30년 총매출 30조원 중 AI 비중을 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AID·C와 B2B, B2C 영역으로 세분화해 사업 전략을 준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220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 반영된 신규 통합전선망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올

4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임금 변경 판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회성 인건비가 대폭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이동전화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분석에서다.

반면 KT는 올 4분기 대규모 조직 재비로 인한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26조3763억원에서 올해 26조57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업이익은 1조6498억원에서 9919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11월 신규 자회사로의 진출과 함께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KT는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자회사 'KT 넷코어'와 'KTP&M'을 설립한 뒤 본사 인력 일부를 이동시켰다. 자회사로 진출 신청자수는 1723명, 희망퇴직은 2800명으로 총 4500명이 줄었다. 이들 퇴직자의 퇴직금은 2024년 실적에 전부 회계 처리돼 반영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30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대장암 체외진단·치과 치료제 등 임상진행

>> 1면 '초코파이 신화...서 계속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제약사 오노약품공업과 항암효과를 가진 후보물질 'LCB97' 기술이전 계약과 복수 타겟에 대한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다.

리가캠바이오의 이같은 가시적 성과는 담 전무의 빠른 의사결정과 미래지향적 관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오리온은 2020년부터 중국산 동루캉의약과 합자 회사 계약을 맺는

등 일찌감치 바이오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국에선 대장암 체외진단, 국내에선 치과질환 치료제 등의 임상을 진행 중이다.

담서원 전무는 바이오 사업에서 성과를 내면서 오리온의 본업인 제과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바이오 사업이 초기 투자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단기적으로 경영 성과를 보여줄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룹의 사업다각화를 이루며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 국민노후보다 눈앞 표심 연금개혁 논의 지지부진

여야, 개혁 주도권 두고 극한 대립  
전문가들 “보험료를 인상 서둘러야”

정부와 정치권이 입을 모아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혁 논의는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개혁 주도권을 놓고 여·야 사이의 대립이 극명해졌다. 여·야 대립으로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떠오르며 ‘표심’과 거리가 먼 연금개혁은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올 상반기 완수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개혁의 방향성 설정 및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단일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현행 보험료율인 9%를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까지 인상하는 계획이다. 재정안정을 위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안도 포함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치며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서로 공감대가 있기에 국회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서두르고 있지만, 논의 및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0일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인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연금특위의 출범을 주장했다. 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논의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보건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만 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서는 다른 부처와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개혁안 도출이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라고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완수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설명했다.

반면 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1일 여당에 보건복지위가 주관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의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여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박주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민주당의 제안으로 복지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희망적이며, (이번 공청회 개최가) 국회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연금개혁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됐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연금개혁은 ‘표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가 시급한 만큼,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보험료를 인상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안의 근본 골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라며 “여야 모두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3% 수준이라도 인상을 실행해 보험료율 인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실손보험 개혁안 갈등 고조 “비급여 제한” vs “졸속행정”

(정부)

(의사단체)

정부 “적자 주범인 과잉진료 해결”  
의사협회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

실손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험업계와도 참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자문기구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동안 비급여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가 동반상승하는 문제를 빚고 있다.

의개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혁 초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비급여의 경우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한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도 차등화한다.

특히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고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중증 비급여 중 의료 비용 우려가 큰 경우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는 참여한 이해 갈등 속에 개혁 논의가 지체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의료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개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급여 행위 제한은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신설 및 본인부담률을 90~95% 적용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실손보험 문제의 원인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에 있는데 정부가 나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보장내역 축소에 대해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상품과 함께 근본적인 비급여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데 의료계의 비급여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실손보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비급여 개편에 대해 본인의 수익을 많이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

## 최측근 영입하고 영화 제작까지... ‘코드 맞추기’ 분주

>> 1면 ‘트럼프 눈치보는’서 계속

마커 저커버그 등 취임식 참석 예정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DEI 정책을 종료하라는 일부 주주의 제안을 거부하며 “기회 균등 고용주”로서 차별 없는 채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참석·기부로 ‘트럼프 코드’ 맞추기 행보

빅테크 기업들은 DEI 정책 폐지 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맞

춰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메타는 지난 7일(현지 시간)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했다. 또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화이트 UFC 최고경영자(CEO)를 이사로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 조엘 캐플런을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승진시키며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롯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은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이달 초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적극적인 ‘코드 맞추기’에 나선 모습이라는 해석이다.

/이해민 기자 hyem@

## “글로벌 경쟁력 위한 ‘골든타임’ 지켜야”

>> 1면 ‘3자 국정협의회 가동’서 계속

환경법, 관세법 등 신속 처리 촉구

특히,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협회는 또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라고 제안했다.

이는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및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환경협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미국도 한국경제 신뢰 … ‘IRA 등 기업지원 유지’에 공감”

## 안덕근 산업장관 방미 후 간담회

미국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 논의  
美 의원들, 韓 기업 투자 중요성 공감  
한미, IRA 통한 기업지원 지속 협의  
체코 원전 수출, 한미 MOU 긍정적

11차 전력계획 확정, 야당 설득 노력  
“민생 안정 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국정 공백에도 업무 연속성 확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탄핵정국과 관련해) 정부가 기능을 안 해서 우리 산업이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안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방미 중 만난 인사들) 본인들이 봐도 지금 크게 동요가 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자기들도 한국 경제의 견조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와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상하의원 의원 등을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사실 일이 터지고 나서 (외국) 상의와 외국 투자기업들을 만나보니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며 “전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조자협회와 대표도 지금까지 운영이 잘되는 것 같고 빨리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는 조언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우리 산업부 인력들이 다 남아있고, 저도 지금 하고 있다”며 “사람 바뀐다고 갑자기 국정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

조가 바뀔 수 있는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다”며 “IR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의원들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했었던 기반이 된 미국 정부 지원정책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애

길 했고,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 정부가 제3국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당국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MOU에 정식 서명한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 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안 장관은 “MOU를 계기로 해서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좀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3월에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큰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이번에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 심해가스전 1차 탐사시추와 관련해 안 장관은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

는 중이고, 완전히 지질 분석하기 까지 7, 8월 정도까지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그 전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5월 정도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 올릴 때도 교육지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에너지 가격 정상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말 꺼내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을 조정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해 조속히 확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에너지정책을 안정화시키고 일관성있게 끌고 나가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다”며 “우리 에너지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너무 딜레이 되면 산업계가 굉장히 우려하므로, 어떻게든 늦지 않게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주말체험농지 확대·푸드테크 등 육성… 1200억 투자로 농업 혁신

농식품부, **崔대행** 앞 로드맵 발표  
스마트농업 비중 20% 확대 목표  
취득절차 등 농지제도 규제 대폭 완화  
K푸드+ 140억 달러 수출 프로젝트 가속

올해 정부는 지난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제도의 틀을 과감히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돼 온 농지를 주말 체험농업,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기존의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관련 생산·연구 인프라에 1200억 원을 투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지제도 혁신을 위해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의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주말 체험농 목적의 농지를 허가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세부 개편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수렴해 상반기 내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 한 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역점을 둔다.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비중의 20%대 진입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기존의 16% 대비 4% 포인트(p) 늘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

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한다.

전후방 신산업 촉진을 위해 총 1212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사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K푸드+’의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동지역과 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국, 중국, 일본 내 중

소도시 중심의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 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수급동향 점검도 상시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비한 공급 여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올해 공공 25.2만가구 등 주택공급… “270만 가구 달성 노력”

국토부,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  
올해 ‘신축 매입임대’ 11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청약 추진

정부가 올 한 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신축매입 11만가구 공급… 3기신도시 등 2만8000가구 분청약

먼저 국토부는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이어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

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 등 민간주택 공급 기반 확충… 연내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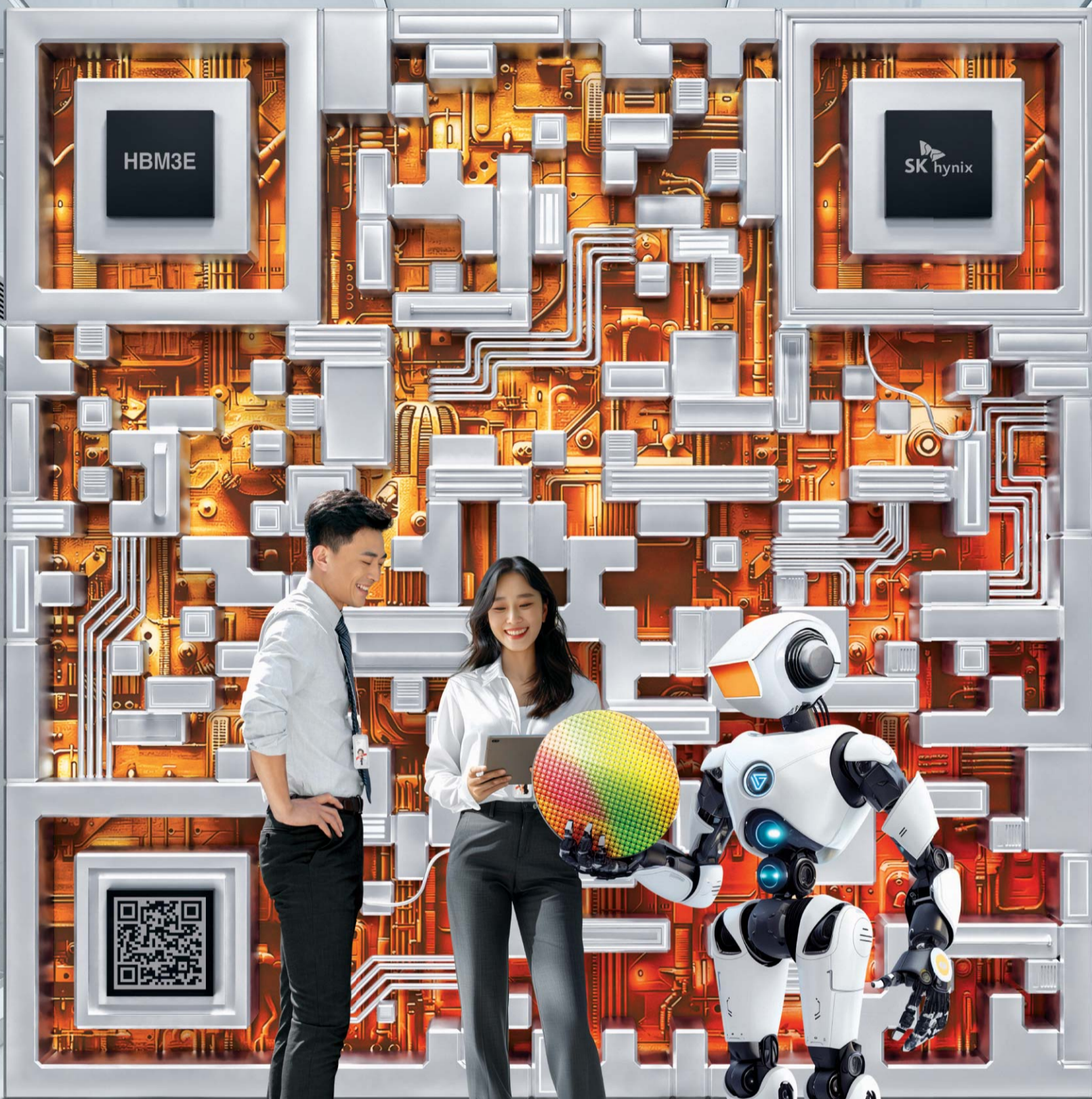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또 상반기 중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 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뉴스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與 지지율 늘었다… 李·민주당 ‘악마화’로 보수진영 결집

국민의힘, 반년 만에 지지율 40%대 보수진영, 조기대선 기조에 李 반감↑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선포도 정쟁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감 등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기 위해선 비상계엄 수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5.7%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고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근접하자 일대에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며 혼잡을 겪고 있다. /뉴스시스

1.4%포인트로 지난 9월 3주차 같은 조사 이후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7월 3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에 40%로 올라섰다.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함께 주저앉았던 정당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며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은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논란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보수진영의 결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에서 명쾌한 설득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보수 유튜브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결집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인식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

는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또다시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꼽힌다. 강성 보수의 정서를 건드린 게 민주당 지지율 정체 및 보수층 결집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추후 내란죄 수사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결집과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어디냐면 자유통일당, 태극기부대, 전광훈 목사”라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서 당이 포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마저 거기 가서 줄 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나가서 포연이 가라앉고 나면, 남아 있는 정당은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두 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與 자체발의 ‘계엄특검법’ 변수

野, 이르면 오늘 본회의서 처리 방침 계엄특검법 내용 바탕으로 협상 전망 與, 野 주도 처리에 반발… 교섭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까지로 넓히고,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외환 유치 혐의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 주도로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

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범위를 외환유치로 확대한 것과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삼았다. 또 최장 150일인 수사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인력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지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며 과잉 수사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할 ‘계엄 특검법’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으로 다변화한 다거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민주당 안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된 안을 내놓으면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syj@

## 崔대행, 정치권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 당부

與 “두 번째 특검, 수용 어려움” 野 “합의 처리,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

란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왼쪽 사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오른쪽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며 약속하고 있다. /뉴스시스

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대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회동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여야 간 내

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란 것이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

*Vivid*  
**STRAWBERRY  
 MOMENT**



하와이안 베리볼  
 Hawaiian Berry Bowl  
**7.4** ICE ONLY  
 \*스푼이 함께 제공됩니다

생딸기주스  
 Real Strawberry Juice  
**6.9** ICE ONLY

생딸기&생바나나 라떼  
 Real Strawberry & Banana Latte  
**6.9** ICE ONLY

**ANGELI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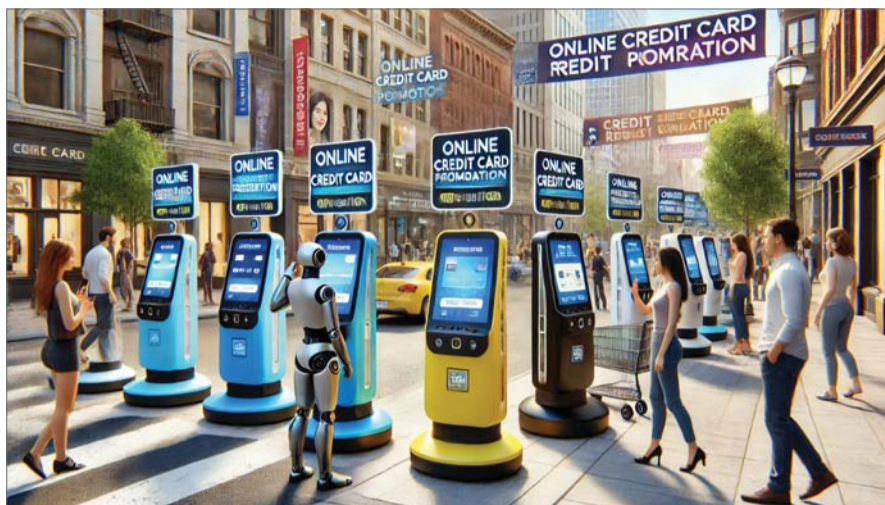
# “연회비 돌려드려요”... 카드사, 연초 신규고객 확보 경쟁

신한카드, 연회비 100% 캐시백  
최초신규·탈퇴후 6개월 고객 대상  
국민·비씨카드도 연회비 돌려줘  
현대카드, 멤버십 보상 추가 제공

연초부터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카드  
업계의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 신규회  
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다. 연  
회비를 100% 돌려주거나 추가 캐시백  
을 지급하는 등 신용카드 무료이용 해  
택을 전면에 내걸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신한카  
드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  
100%를 캐시백한다. 행사 대상 신용카드  
는 총 32종으로 최대 5만원까지 돌려  
준다. 가입 대상은 최초 신규고객과 탈  
퇴 후 6개월 경과 고객이다.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도 연회비  
의 100%를 돌려준다. KB국민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를 신청하면 28종에 한정해 연회비를  
전부 캐시백한다. 부가서비스 및 선택  
적 항목에 동의하고 KB페이에 카드를



Chat GPT가 생성한 '온라인 신용카드 가입' 이미지.

등록하면 된다. 이어 비씨카드는 바로  
카드와 K-패스 카드 연회비를 100%  
환급기로 결정했다.

현대카드는 프리미엄카드 영업에 공  
을 들인다. 연회비 환급에 바우처혜택  
까지 마련했다. 이달 '현대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 카드 에디션2'를 발급하면 연  
회비에 멤버십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대 아멕스 그린카드 에디션2의  
경우 연회비 15만원을 모두 환급하며  
플래티넘 카드는 총 40만원을 적립해

준다.

이 밖에도 롯데카드는 연회비 2만원  
짜리 카드에 10만원 캐시백 혜택을 담  
았다. 추가로 내년 연회비도 면제한다.  
연간 '로카 나누기' 카드로 600만원 이  
상 사용하면 된다. 우리카드는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고객이 우리원페이로 10  
만원 이상 결제하면 8만원 캐시백 혜택  
을 준다. 자동납부·정기결제에 등록하  
면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카드사가 일괄적으로 연회비 무료 혜

택을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에  
서는 본격적인 회원 유치 경쟁과 함께  
영업 분야에 체질개선이 이뤄진 영향으  
로 풀이했다. 카드모집인을 통한 회원  
확보 비중을 낮추면서 비용 효율화에  
나선 것이다. 통상 카드모집인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카드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장당 10만~15만원 수준이다. 카  
드사는 모집인 수당을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 모집인 채용 여건도 녹록지 않  
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  
년말 전국의 카드모집인은 9217명이  
다. 전년 대비 2165명 줄면서 1만명선이  
붕괴됐다. 이후 ▲2021년(8145명) ▲  
2022년(7678명) ▲2023년(5581명) ▲  
2024년(4033명) 순으로 감소세다. 온라  
인을 통한 영업력 강화가 요구되는 이  
유다.

일각에서는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신  
용카드 발급이 제2의 '카드대란'을 일  
으킬 수 있다 우려다. 지난 2002년 카드  
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다수의 신  
용불량자를 양산했던 만큼 경쟁 과열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을 지키고 있는 만큼 소비자 선택의 영  
역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  
우 연회비 100%의 경제적 이익을 소비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  
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  
울러 카드대란 사태 이후 카드업계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부실  
예방책을 마련했다. 애당초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지난해 역대급 연회비 이익을 거둔  
만큼 관련 영역에서 소비자 혜택을 강화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카드사 8곳(신한·삼성·K  
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  
드)의 연회비 수익은 1조756억원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  
사들이 프리미엄카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반적인 연회비 수익이  
상승했다”며 “올해는 신규회원 모집에  
초점을 맞추고 충성고객 확보에 집중하  
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지방 건설사 유동성 위기 신호탄 우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후폭풍  
미분양에 중소형사 부도 위험 심화  
정부, 시장 부양 조치 효과도 미지수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동아건  
설과 같이 부채비율이 높고 미분양에  
노출된 지방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유  
동성 위기의 신호탄일 수 있어서다.

관건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여부  
와 속도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13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동  
아건설은 주택사업부문의 경우 7개 사  
업장에서 2899가구 규모의 공사를 진  
행 중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의 보증금액은 총 1조1695억원으로 파  
악됐다.

신동아건설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  
에서 58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다. 지난  
201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미분양  
적체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영  
난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돌아온 60억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했

고,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단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  
이다. 태영건설과 달리 금융권 익스포  
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다.

전매승 LS투자증권 연구원은 “신동  
아건설의 매출규모와 금융여건을 감안  
할 때 PF 리스크 관련 금융시장과 금융  
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하락 기조와 맞물려 유  
동성·신용위험이 안정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잔여부실 처리로 인한 제2금융권의  
손실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시장  
에 영향을 미칠 규모는 아니다.

2024년 9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신  
동아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총 1202억원  
안팎이다. 캐피탈과 부동산신탁이 각각  
573억원, 533억원이며, 증권 53억원, 저  
축은행 43억원 등이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며, 부동산신탁  
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이미 완공되  
어 실질적 리스크는 없는 곳으로 알려  
졌다.

다만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은  
올해 더 심화될 수 있다. 미분양이 쌓이

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신동아건설과 다르지 않다. 작년 부도가  
난 건설업체 29곳 가운데 25개가 지방  
건설사였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  
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더 증  
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는만큼 부채비율이 400%  
를 초과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매  
출액 대비 5% 이하인 기업들에 대해서  
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8644호다. 작년 초 1만857호에  
서 늘면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이 1만4802호  
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과  
부동산 업황에 대한 추가적인 저하위험  
이 존재한다”며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건설 산업의 위험 변동성에 대해 모니  
터링을 강화하고, 회사별 위험 대응능  
력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GTX 개통에 운정중앙역 인근 호가 상승

운정중앙~서울역구간 운행 시작  
대단지 힐·푸·아 방문자수 3배 ↑  
매매 문의 대비 거래는 많지 않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인 '운정중앙~서울역'구간이 지난달  
28일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정중앙역 인  
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의 호가도 올  
랐지만 아직까지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  
지 않아 수요자와 공급자 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  
노노에 따르면 운정중앙역 인근 랜드마  
크 대단지인 불리는 '힐·푸·아'(힐스테  
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12월 4주차 방  
문자 수(2만 8100명)는 전 주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단지에 대한 언급도 늘었다. 개  
통일 이후 1월 8일까지 12일 동안 '힐푸  
아'에 등록된 이야기 수는 281개로 직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많아 GTX개통  
에 따른 수요자들의 기대가 컸다.

다만 매매 문의 대비 거래는 많지 않  
다. 인근 단지의 최근 월별 거래량을 살  
펴보면 10월 45건이었던 매매거래량은  
11월, 12월 각각 25건에 그쳤다. 가격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이 위축  
된 가운데 급매물 또는 저층 급매물 위  
주로 거래됐다. 주변 7개 단지의 12월  
평당 매매가격은 2739만원으로 10월 이  
후 하락세다.

운정중앙역 인근의 공인중개업소 A  
씨는 파주는 주택공급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작년에 8600세대가 공급됐고  
올해 8500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  
다”라며 “힐스테이트운정’ 등이 3000세  
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



GTX-A 운정중앙역 1번 출구. /전지원 기자

했다.

자족기능도 부족하다. A씨는 “옆 동  
네 일산의 경우 킨텍스, 일산테크노벨  
리, 한류월드, 방승영상벨리 등으로 인  
구유입 효과도 있는 반면 파주는 이런  
산단이 없다”고 말했다. 단순 베드타운  
기능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개통했던 동탄역 역시  
인근 단지를 살펴보면 개통(2024년 3  
월) 이후 일대 단지의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 동탄역롯데캐슬은 지난  
2월 중순 전용 102㎡ 기준 22억원에 매  
매 거래로 화제를 모은 바 있었으나 개  
통 이후 19억원대로 떨어졌다.

전용 84㎡도 15억원 중반대에서 거  
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와 큰 차이  
가 없는 매매가다.

교통호재의 경우 타당성 평가, 착공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개통으로 인해 즉각적  
으로 가격이 오르는 않지만 입지 개  
선 측면에서 입차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운정  
중앙역 인근 단지들도 호가 상승세는  
뚜렷하다. 전용 59㎡ 기준 5억원 초중반  
이었던 매물은 최근 5억 후반에서 6억  
원, 전용 84㎡는 8억원대 매물로 나왔  
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시세가 상향조  
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지원 기자 jiw13@

## 구본욱 사장 “변화·혁신 디자인하는 해”

KB손보 2025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2025년  
을 KB손해보험이 보험시장의 관을 바  
꾸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손해보험  
의 스탠다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해’로 삼겠  
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지난 10일 KB손해보험 인

재니움 수원(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강  
조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사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진행했다.

13일 KB손보에 따르면 외부 특강으  
로 시작된 이번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는  
2024년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경  
영전략 방향과 각 부문별 원포인트 전

락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이한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2025  
년’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6가지 핵심 어젠다로 ▲성공의 도미  
노 문화 확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  
▲고객중심경영 실행체계 조기 완성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리더중심 조직문  
화 변화관리 지속 ▲변화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제시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아우디코리아, '신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개최

# “A6e-트론·Q5 등 16종 신차 출시... 프리미엄 가치 전달”

변화하는 고객 요구 적극 대응  
수도권 서비스센터 네트워크 강화  
클로티 사장 “지속가능 성장 추구”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13일 신라호텔 서울 영빈관에서 올해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내실을 다졌다면 2025년은 네트워크 강화와, 딜러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13일 신라호텔 서울 영빈관에서 '신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올해 전략을 공개했다. 올해 핵심 전략은 프리미엄 가치 전달과 변화하는 고객 요구, 자동차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올해 한국 시장에 전기차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을 포함해 A6e-트론과 내연기관차 더 뉴 아우디 A5, 더 뉴 아우디 Q5 등 총 16종의 신차를 출시해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차 출시라는 설명이다.

클로티 사장은 “올해 아우디코리아는 딜러사들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우디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세우고,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가 올해 주력으로 내세운 모델은 Q6e-트론으로, 아우디와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플랫폼



아우디 코리아가 13일 신라호텔 서울 영빈관 에메랄드홀 앞에 Q4 e-트론(왼쪽부터), Q6 e-트론, Q7, Q8을 전시했다.

일렉트릭(PPE)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양산 모델이다. 유럽 신차안전도 평가인 유로 NCAP 테스트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으며, 100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WLTP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641km 주행이 가능하다. 내달 중 고객 출시 행사와 함께 순차적으로 차량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클로티 사장은 “지난해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Q4 e-트론은

프리미엄 전기차 리더로서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다졌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발맞추면서 지속가능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딜러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하나의 아우디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뉴 아우디 A5와 더 뉴 아우디 Q5는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된다. 이들 차종엔 새롭게 개발된 'PPC'(프리미엄 플랫폼 컴버스전) 플랫폼이 적용됐다. 더 뉴 아우디 A5는 아우디의 대표 중형 세단인 A4·A5의 장점을 모아 출시되는 쿠페 스타일의 세단이다. 또 더 뉴 아우디 Q5는 아우디의 시그니처 SUV Q5의 완전 변경 모델로, 차세대 고효율 엔진을 탑재해 출력을 크게 높였다.

특히 아우디코리아는 올해부터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 콘셉트의 전시장을 시티몰 전시장 형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시장은 기존 33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서비스센터로 기존 32개에서 37대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클로티 사장은 “서울과 경기 등 고객 밀집 지역에서 30분 이내로 서비스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경정비나 정기점검은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 스테이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SK온, 전고체 배터리 연구성과 발표... 일부 특허 출원

광소결 기술, 배터리 제조 공정 접목  
LMRO 양극재 적용 가능성 분석도

SK온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성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기술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SK온은 국내 우수 대학·기관과 함께 진행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이 논문으로 작성돼 최근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SK온이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진호 박사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연구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 공정 고도화가 핵심이다. 인쇄 회로 기판 공정에 주

로 활용되는 광소결 기술을 배터리 제조에 접목시킨 획기적인 연구라는 평이다.

해당 연구를 다룬 논문은 에너지·화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ACS 에너지 레터스'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논문 저자 9명 중 6명이 SK온 구성원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배터리로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고체 전해질 종류는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로 나뉜다.

산화물계 전해질 소재는 리튬이온 이동 경로 및 기계적 강도 증가를 위해 일

반적으로 1000도 이상의 고온 및 10시간 이상의 열처리 공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제조 원가 부담과 더불어 소재의 취성 파괴와 같은 취약점이 대두되며 대면적화가 과제로 여겨졌다.

SK온은 빠른 속도와 저온 열처리가 특징인 광소결 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먼저 연구진은 조사된 빛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유색 무기 안료를 발견해 산화물 전해질 소재에 적용시켰다. 이와 함께 선택적으로 수 초안에 열처리를 가능케 하는 초고속 광소결 기술을 활용, 최적의 균일성을 갖는 다공성 구조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망간리치(LMRO) 양극재의 황화물

계 전고체 배터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대학교 이규태 교수 연구팀과 진행한 이 연구는 에너지 소재 분야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의 표지 논문으로 지난 2024년 12월 발간됐다.

LMRO 양극재는 원가적 이점이 크지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용시 액체 전해질 부반응으로 인한 가스 발생, 전압 강하·용량 감소 등의 난제가 있었다.

SK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발생을 저감하는 특수 코팅재를 적용해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는 방법도 찾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 현대오토에버 김지현 DX센터장 영입

현대오토에버가 디지털 전환(DX)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제조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오토에버는 디지털 경험 전략을 총괄하는 DX센터장을 신설하고, 김지현 상무를 초대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상무는 초대 DX센터장으로 ▲ 디지털 서비스 전략수립 ▲ 국내외 거버넌스 강화 ▲ 데이터 기반 품질평가 등 디지털 경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김지현 상무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DX 전략을 구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사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차그룹 설 특별 무상점검 실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13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이번 설 특별 점검은 ▲기본항목(브레이크 패드·공조장치·타이어·등화장치) ▲엔진룸(오일류·냉각수·워셔액·배터리) ▲전기차(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점검을 마친 고객에게는 부가 서비스로 워셔액을 무상 지급한다.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15일부터 17일까지 마이현대·마이기아·마이제네시스 등 차량 점검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다음, 쿠폰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 현대차, 유럽 상용차·수소 법인 조직개편

리더십 재정비... 수소트럭 본격 판매  
현대차가 글로벌 상용차 사업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수소트럭 판매 확대에 본격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유럽에 상용차 및 수소 법인을 설립하고, 그동안 글로벌 상용 비즈니스 사업 부장을 맡았던 마크 프레이물러 전무를 실장으로 이동시켰다.

프레이물러 전무는 앞으로 유럽 내 수소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 등 모든 밸류체인을 감독하며 현대차의 수소 생태계 확장에 주력한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수소트럭 '엑시언트 퓨얼셀'을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레이물러 전무 후임으로는 박철연 글로벌 수소 비즈니스 사업부장(전무)을 임명했다. 박 전무는 그동안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차 부문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수소트럭 엑시언트 퓨얼셀은 총중량 28톤급으로, 한번 충전에 최대 570km를 주행할 수 있다. 대형 트럭의 주류 차종인 경유(디젤) 트럭보다 우수한 성능과 친환경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계 최초 양산 수소트럭인 엑시언트 퓨얼셀이 장착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대형 배터리보다가

볍고 충전 시간이 15~20분으로 짧아 장거리 물류 운송에 최적화 돼 있다.

엑시언트 퓨얼셀은 이미 독일과 스위스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스위스에서는 이미 엑시언트가 누적 주행거리 1000만km를 돌파하며 성능과 내구성을 입증했다.

프랑스에서는 독일 렌탈 업체 하이레인과 종합 물류기업 DB셴커를 통해 엑시언트 퓨얼셀 능력을 검증했다. 프랑스 진출은 유럽 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엑시언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현대차는 향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로도 공급처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상용차 수출을 책임지게 된 박철연 전무도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해외 영토 확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넥센타이어 미래 모빌리티 제품 선봬

넥센타이어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디자인한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타이어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우수 작품은 '도시 외곽과 중심을 순환하는 분리·결합형 대중교통'으로 마곡더넥센유니버시티에 전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로 공개한다.

미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며 운행할 대중교통 모빌리티로, 사방에 장착된 타이어 휠로 승·하차와 환승이 가능하며 휠 탈착으로 모빌리티를 자유롭게 결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또 진행 방향을 360도로 전환할 수 있는 옴니휠 기술을 적용해 모빌리티의 이동성을 극대화한다. /양성운 기자

# ‘AI Everywhere’로 바뀐 일자리… “인간 중심 안전망 시급”

(인공지능의 일상화)

IT업계, AI로 사라지는 직업군 우려  
재교육 부재, 심화되는 고용 불안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 초래한 위기  
AI 시대, 지속 가능한 공존 필요

글로벌 기술 기업과 석학들이 ‘AI Everywhere(인공지능의 일상화)’를 외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2025년을 AI 소프트웨어가 일상 속 변화를 본격적으로 이끄는 원년으로 지목하는 한편, IT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감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빠른 도입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은 AI 솔루션에 30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용은 2028년까지 연평균 29.0% 성장해 6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에 누적 19조9000억 달러의 영향을 미치며, 2030년 전 세계 GDP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 조직의 AI 도입률이 지난해 55%에서 올해 75%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AI의 빠른 확산에 따라 주요 기업들



한 연구원이 MEC플랫폼이 설치된 서버실에서 AR글래스를 쓰고, 산업용 AR서비스를 시험해보는 모습.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산업현장에 도입되면서 일자리 감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SKT

은 AI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25년을 AI 시대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략 담당인 크리스 영 부사장은 2025년 AI 트렌드에 대해 “2025년은 AI가 일상과 업무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는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AI는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조직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도입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SAS는 AI 보안 위협, 탄소 배출, 불량 데이터로 인한 AI 오염 등 부정적인 변수들을 언급하면서도 2025년을 AI 시대의 대전환기로 평가했다. SAS 측은 “생성형 AI가 주목받는 기술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생성형 AI가 ‘화제의 신기술’에서 ‘일상적인 AI’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술적인 트렌드의 변화도 예고된다. 엔비디아는 소형언어모델(SLM)의 부상을 주목했다. 소형언어모델은 옛 지 컴퓨팅에서 운영되는 로봇의 기능을 개선하며, 고효율 에너지와 가속화된 추론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AI 시대의 도래는 실업률 증가라는 심각한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AI 도입을 통해 업무 환경을 재구성하면서 노동 인력의 감축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생성형 AI의 한 분야인 ‘AI 에이전트’가 올

해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AI 에이전트는 가상 직원(Virtual Employee)으로 노동 인력에 합류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추론과 전략 구상, 자율적 작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술은 노동 인력 감축을 가장 직접적으로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대기업 41%가 특정 업무의 AI 자동화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F는 “AI와 재생에너지 발전이 노동 시장을 재편하며, 특정 기술과 전문직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다른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은 기존 직원에 대한 기술 재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평생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는 2030년까지 1억700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샘 올트먼은 “AI가 중간 수준의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BI는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카카오

### 지난해 성탄절 연휴·연말 T택시 호출 역대 ‘최다’

지난해 카카오 T택시 이용자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12월 21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3일 카카오 T의 택시 호출 이용자수와 관련한 통계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최대 호출 이용자수를 기록한 날의 택시 탑승 성공률이 매년 상승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22년 대비 12%p 이상 증가를 기록하며 큰 폭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카카오 T 택시 호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날은 각각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21일로 모두 연말 시즌이었다. 세 날짜 모두 성탄절 또는 성탄절 연휴를 앞둔 주말의 토요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연도별 택시 호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날의 탑승 성공률은 각각 71.3%, 75.4%, 83.4%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탑승 성공률은 택시 호출을 시도한 이용자가 실제로 택시에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김서현 기자

## SKT, 엔비디아 GPU 기반 ‘AI 클라우드’ 선봬

### 가산 AI 데이터센터 오픈 AI 클라우드 ‘GPUaaS’ 출시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고 미국 람다(Lambda)사와 1년간 준비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이를 계기로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AI클라우드에는 엔비디아의 GPU H100을 기반한 것으로 GPU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가산 AI 데이터센터(이하 AIDC)를 오픈하고 시험 운영을 마친 뒤 AI 클라우드 서비



지난해 12월 23일 SK브로드밴드 가산 AIDC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가 GPUaaS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SKT

스인 ‘SKT GPUaaS(서비스형 GPU)’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가산 AIDC는 랙 당 전력밀도가 국내 최고 수준인 44kW로 국내 데이터센터 랙 당 평균 전력밀도인 4.8kW의 약 9배에 달하는 등 고밀도 GPU 서버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코로케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SKT GPUaaS’는 SK 람다사와 지난 1년간 함께 준비한 구독형 AI 클라우드다. 이를 위해 가산 AIDC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람다 센터를 유치했다. SKT는 지난 2월 AI DC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글로벌 행보로 글로벌 GPU 클라우드 회사인 람다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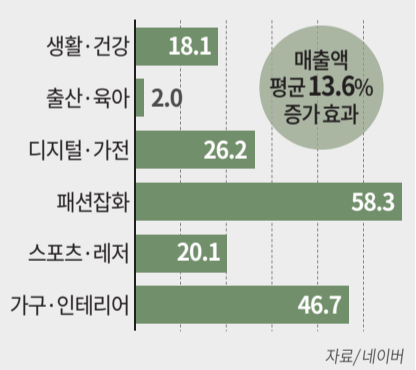
2012년 AI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람

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GPUaaS 기업으로, SKT는 람다와의 협력을 통해 그래픽 처리장치(GPU)의 안정적 확보를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출시하는 GPUaaS는 엔비디아 GPU H100을 기반으로 한다. H100은 현재 국내에 도입된 GPU 중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T GPUaaS 구독을 원하는 기업 고객은 AI 서비스 규모나 목적에 따라 GPU 수량과 기간을 선택하고, 단독서버·병행서버·전용회선 등 맞춤형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네이버 ‘반품안심케어’의 SME 매출액 증대 효과



## 네이버

### 무료 교환·반품 지원하니 중소기업 매출 13.6% ↑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무료교환·반품 서비스네이버페이 ‘반품안심케어’의 중소·중견기업(SME) 매출액 증대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강형구 교수팀이 네이버페이의 반품안심케어의 효과성과 의의를 분석한 결과, SME의 실질적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반품안심케어는 무료교환·반품 배송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서비스로, 2024년 12월 누적 판매 건수 1억건을 돌파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SME가 판매하는 상품 중 반품안심케어가 적용된 상품의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보다 평균 약 13.6%가 더 높았다.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SME의 주문 데이터를 서로 비교한 결과 반품안심케어에 가입한 SME의 일 결제액이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 삼성전자, ‘중고폰 보상’ 오늘부터 시작

### 새 폰 안 사도 ‘간편보상’ 가능

삼성전자가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인 ‘갤럭시 간편보상’을 시작한다. 그동안에는 신제품 구매를 전제로 쓰던폰을 반납해야 특별 보상해주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조건 없이 중고폰을 매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갤럭시 간편보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이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연중 언제든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삼

성닷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 S23·S22·S21·S20 시리즈, 갤럭시 Z 폴드5·폴드4·폴드3, 갤럭시 Z 플립5·플립4·플립3이다. 모델은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중고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를 원하는 경우 갤럭시 간편보상 페이지에서 예상 견적을 확인한 다음 간편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회수 가이드에 따라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 LGU+ “개인정보 동의 내역 한눈에”

### ‘프라이버시 센터’ 오픈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주체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센터’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라이버시 센터는 간단한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센터가 고객들에게 처리방침이나 기

술 등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LG유플러스의 프라이버시 센터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 통합 동의 관리’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다. 고객이 프라이버시 센터에 로그인하면, 주요 서비스별로 어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했는지 조회하고 동의 여부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구남영 기자

gift

# 설날 마중

\*\*\*

## 설선물 사전예약

감사의마음을 전합니다

산지직송으로 **능수한우암소세트** 제품과  
**프리미엄 솔트에이징** 육류, **프리미엄 과일** 까지  
 명절선물세트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대형증권사 '1兆클럽', 중소형은 '실적부진'... 양극화 심화

미래에셋·삼성·키움·한투증권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 예상치 1兆  
해외주식 수수료 실적도 쏠림현상  
중소형사, 부동산 PF 부실 지속  
일부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지난해 국내 증시 부진에도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에 힘입어 '1조클럽'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인투자자 이탈 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실적 부진과 신용등급 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내 명암이 엇갈렸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한국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등 4곳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시장예상치(컨센서스) 1조원을 넘겼다. 국내 증권사 다수가 같은 해에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최초다. 2022년에는 메리츠증권 1곳이 유일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미지.

고, 2023년에는 전무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부진했지만, 코로나19 당시 증가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2023년 말 680억달러(100조416억원)에서 지난해 말 1121억달러(164조9215억원)까지 불

어났다. 이는 약 65% 급증한 수치다.

다만 해외주식 수수료로 인한 실적 호조도 대형사로 쏠리고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8.9% 증가, 비중투사는 27.6% 감소하며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개별사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미래에셋·삼성·키움·한투·NH투자증

권 등)의 영업익 시장예상치 총합은 5조 6077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66.2%(2조 234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SK증권과 다올투자증권, iM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역성장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매승 LS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잔여 부실 처리 등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업권 내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밸류업 정책 역시 일부 대형사에 국한된 이슈"라고 짚었다.

지난해 국내 3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신용평가사들은 일부 증권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나신평은 SK증권, 하나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등급 전망을 일제히 내렸다. SK증권의 장기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단기 신용등급은 'A2+'에서 'A2'로 내렸으며, 하나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한기평도 SK증권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K증권은 누적 영업손실 764억원, 누적 순손실 525억원을 기록했다. 다올투자증권도 누적 영업손실 300억원, 순손실 171억원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하나증권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9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49% 급증했고, 순이익 측면에서 흑자전환했다. 하나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10위권 안에 속하는 증권사인 만큼 회복력을 갖췄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자본 여력이 낮은 증권사일수록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에 노출돼 있고, 2020년 이후 등급이 상향 조정된 증권사 중 당시 수준의 수익창출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증권사도 신용도 하향압력에 노출돼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거래 증가 효과와 수도권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 신규 딜 증가의 효과가 중투사에 집중된 반면 비중투사는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수수료수익이 감소하면서 수익창출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증권사, MTS·AI 서비스 투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개발비, 전년비 12.3% ↑... 3379억  
전산운영비도 12% 늘어난 7046억  
디지털 환경 익숙한 젊은 고객층 유입

증권사들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증권사들의 개발비 지출은 전년 대비 12.3% 늘어난 3379억원을 기록했다. MTS 등 신규 전산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인 개발비는 2021년 1719억원, 2022년 2421억원, 2023년 3275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스마트폰으로 투자 업무를 보고 있는 이미지.

다. 전산시스템 운영, 고객 정보보호,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산운영비 역시 7046억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증권사로 살펴보면 KB증권이 개발비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154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규모다. 전산개발비는 13% 늘어난 519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개발비로 468억원을 지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전산운영비로 770억원을 지출, 11%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개발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대비 6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산운영비는 681억원으로 12% 늘어났다. 하나증권은 개발비로 413억

원, 전산운영비로 229억 원을 투자하며 각각 전년 대비 42%, 18% 증가했다.

올해도 사용자 편의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MTS를 새롭게 개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배당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배당 마스터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의 배당금 정보와 추천 배당주, ETF, 리츠 등 상품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QV MTS에 다양한 투자 정보를 추가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와 협력, 해외 기업 실적 분석 자료인 '어닝 폴노트', 서학개미와 큰손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주요 기업을 다루는 '핵심쏙쏙', 특정 산업 섹터를 소개하는 'Hot 이슈' 등 전문 콘텐츠를 도입하며 투자 정보를 다각화했다.

대신증권은 자사 MTS인 '대신 사이보스'와 '대신 크레온'을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뉴를 트레이딩, 상품, 연금, बैं킹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사용 빈도에 따라 하위 메뉴를 재배치했으며, 고객이 계좌 현황과 투자 성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정보' 화면도 새로 추가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투자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이라며 "MTS 고도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증권업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지난해 개인 국내채권 42兆 순매수... 기준금리 하락 영향

금투협 '장외채권시장 동향'  
外人, 74.9兆 매수... 전년비 17兆 ↓

지난해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순매수 규모가 4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 기타 금융채 등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준금리 하락 기조속에서 안정적인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선호가 지속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국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연초 대비 하락 마감했다.

금투협은 "연말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소식 등으로 금리가 내렸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국채 47조6000억원, 통안채 16조5000억원 등 총 74조9000억원어치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다. 전년 대비 17조원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268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장외 채권 거래량은 전년보다 474조7000억원 늘어난 49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2조4000억원 늘어난 20조3000억원이 거래됐다.

한편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감소한 87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순발행은 111조3000억원 증가해 잔액은 2826조6000억원에 달했다. 국채는 전년 대비 9000억원 감소한 222조7000억원이 발행됐고, 통안증권은 41조8000억원 줄어든 87조7000억원이 발행됐다.

반면 금융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의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7조5000억원 증가한 321조1000억원이 발행됐다. 회사채는 투자 수요 회복으로 31조7000억원 증가한 121조원이 발행됐다. 특히 회사채 발행 시장의 경우 기준 금리 인하 국면에서 활기를 띠며 수요 예측 금액이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한 4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요 예측 참여액은 227조원으로 참여율은 513.7%를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 iM증권, 자본 효율성 통해 지속가능성 추구

2025년 경영전략회의 진행

iM증권은 지난 9일 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iM증권 본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2025년 경영계획을 전사에 공유하고 지속가능 성장 회복과 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무용 사장을 비롯한 전 사업본부의 임원 및 단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iM증권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약경영 추진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의 정상화, 리테일 부문 흑자 전환, 트레이딩 운용 방식 개선, 대출 중개·주선 사업 확대 등의 세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iM증권은 PF 재구조화, 정상



지난 9일 iM증권 본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성무용 iM증권 사장을 비롯한 전 사업본부 임원 등이 모여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전략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iM증권

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상각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 기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3분기 기준 약 2400억원대의 총당금을 적립하고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율을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54%로 낮췄다. /신하은 기자

# 고객강화·브랜드 육성·윤리경영으로 경기침체 파고 넘는다

## 가구업계, 경영전략

가구업계가 주택 경기 등 전방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고객 강화, ESG를 포함한 윤리경영,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올해 파고를 뛰어 넘는다.

13일 각사에 따르면 한샘은 올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과 '선망받는 브랜드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샘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연결)은 1조418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649억원)에 비해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손실(-96억원)에서 지난해 흑자(27억원)로 돌아섰다.

김유진 한샘 대표는 신년을 맞아 독자 전환을 이뤄낸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올해를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외부 변수들을 탓하기에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기회들이 너무 많다"며 "힘을 합쳐 준비한 전략들을 하나씩 펼쳐 나간다면 더욱 선망받는 한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샘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기준으로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리바트에 '종합가구사 1위' 자리를 내줬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3분기까지 1조4559억원의 매출(연결)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현대리바트는 특히 빌



김유진 한샘 대표



김홍극 신세계까사 대표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안정호 시몬스 대표

**한샘** "준비한 전략, 펼쳐 나가야" 3분기 영업이익 27억 '흑자 전환'

**신세계까사** 마테라소 매출 35%↑ 오프라인 매장 4~5곳 추가 계획

**에이스침대** '기업윤리' 핵심 가치로 임직원에 투명·공정활동 등 독려

**시몬스** "바나둠, 반영구적 사용 세상에 없던 기술로 100년 선도"

트인을 중심으로 한 B2B가구, 법인·자재와 해외가설공사 등 B2B사업 부문에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당시 1조237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현대리바트는 1조3846억(2020년)→1조4066억(2021년)→1조4957억(2022년)→1조5857억원(2023년)

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지에프홀딩스가 41.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인 신세계까사는 올해 수면 전문 브랜드 '마테라소' 육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테라소는 신세계까사가 2021년 매트리스 라인업을 전면 재정비하면서 선보인 브랜드로, 2023년 7월 매트리스 브랜드에서 '수면 전문 브랜드'로 영역을 넓혔다.

특히 마테라소는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고속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는 전년 대비 50% 매출 신장이 목표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올해 전국 주요 지역에 마테라소 오프라인 독립 매장을 4~5곳 추가로 열 계획"이라며 "상

반기 중 고기능성 매트리스 컬렉션을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침대뿐만 아니라 협탁, 베드벤치, 수면 유도 등 소품류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세계까사는 ㈜신세계가 9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정유경 회장이 18.56%로 대주주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는 2025년을 맞아 기업윤리를 핵심가치로 삼고, 투명·공정·합리적인 기업활동을 임직원들에게 독려했다.

안 대표는 "윤리경영은 더 이상 기업 경영의 변수가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에이스침대는 윤리강령 제정·시행, 사이버 신문과 설치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현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을 위해 예술적이고 편안한 환경(Artistic and Comfortable Environment)'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시몬스는 '뷰티레스트' 탄생 100주년인 2025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안정호 시몬스 대표는 지난해 9월 경기 이전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나둠 포켓프링을 적용한 뷰티레스트 신제품을 언론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100% 자체 생산을 통해 바나둠 포켓프링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매트리스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여 년 전 시몬스의 품질 혁신으로 전 세계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했듯, 이전 바나둠 포켓프링이라는 '세상에 없던 기술'로 또 다른 100년을 이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몬스는 올해 비건매트리스 브랜드 'N32'에도 큰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N32에서 'N'은 New를 말한다. 32는 하루 8시간의 수면이 24시간을 바꾼다는 의미로, 8에 24를 더해 숫자를 만들었다.

N32 플래그십 스토어는 지난해 서울 논현, 경기 기흥, 부산 등에 추가로 열며 현재 전국에 20개 매장을 두고 있다. 올해에도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고객들과 접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연간 74억 지원' 창업중심대학 2곳 선정

중기부, 비수도권 지역 대학 대상 20일 예비신청, 내달 7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창업중심대학 2곳을 새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74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중기부는 현재 권역별 총 9개 대학

(한양대·성균관대·호서대·한남대·전북대·강원대·대구대·부산대·경상국립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이를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

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하는 등 역할 고도화를 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이다.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내달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대·중기 상생일자리' 참여사 모집

청년 구직자 직무교육·취업 연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단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은 대·중견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8개 대·중견기업 사업단을 모집해 6352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중 3450명이 2108개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단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인 수요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교육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 과정 개발 등 우수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협력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청년 구직자 모집부터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중진공은 선정된 사업단에 교육 과정 개발비, 임차료 등 운영비를 제공하고, 사업단은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희망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실무 교육과 취업 매칭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KCC

### 두산건설과 손잡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

KCC가 두산건설과 손잡고 아파트 컬러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해 나선다.

KCC는 두산건설과 풍부한 컬러 디자인 기술력을 토대로 주거 브랜드 컬러 디자인 특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MOU를 통해 KCC는 두산건설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아파트 내외벽,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의 컬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전용 색상집도 제작해 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KCC 맹희재 상무, 두산건설 신종범 상무, KCC 안일진 상무(왼쪽부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또 KCC는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 등 5가지 콘셉트에 KCC

의 컬러감을 녹여내어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성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KCC는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시인성과 명확성이 높은 색채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락앤락 '메트로 밀폐머그 텀블러' 선보여

락앤락이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한

'메트로 밀폐머그 텀블러'를 출시했다. 13일 락앤락에 따르면 '메트로 밀폐머그 텀블러'는 앞서 출시한 메트로 머그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기능은 더욱 향상했다.

텀블러 본체와 캡 모두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수구도 넓어 손세척이 쉽다. 또한 고온에서 세척해도 형태가 변하거나 보온·보냉 기능이 저하될 염려가 없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오피스에 특화된 감각적인 디자인과 기능도 눈길을 끈다. 손잡이가 달려있는 머그컵 모양의 텀블러로, 사무실 등 실내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클립형 마개 디자인을 적용해 한 손으로도 열고 마시기 쉽다.

기존 '메트로 머그'의 특징점도 그대로 살렸다. 이중 진공 구조로 설계되어 10°C 기준 최대 19시간 보온, 50°C 기준 최대 4시간 보온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 과일 세트 등 6000t 할인 판매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행사  
과일 세트 3만 상자 등 포함 할인  
실속형 선물세트·성수품, 10% ↓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주력”

소비자들이 올해 설에는 온라인도매 시장을 통해 선물세트와 성수품 등을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구매자는 탐색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해외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000톤(t) 규모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성수기에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의 절감을 도모한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한 추가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50%)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 등이다.

우선 행사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 원 수준으로, 약 6000t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뉴스

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아울러, 사과·무·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

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전체 거래의 61%가 산지에서 소비지 중소형마트 등으로 상품이 직접 배송된다. 물류 효율성도 높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성과를 수치로 보면 유통비용이 7.4% 절감되고 소비자 후생이 3.9%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 시 바로 정산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이 없다는 장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도매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이스라엘·일본과 산업기술 혁신 가속”

산업부 첨단기술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3일 제경희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벨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이 화상으로 개최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올해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해 매년 총 800만달러를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며, 올해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장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하고 곧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미국 의료기기 수출 규제 극복 돕는다

KT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심사 협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미국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은 김현철 원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정 의료기기 기술문서 제3차 심사기관인 빈스탁벤처스(BEANSTOCK Ventures)의 샌디에이고 본사에서 사나몬테 레이 대표와 의료기기 시판전 신고(FDA 510(K))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FDA 510(k)’란 의료기기 제조자가 시판 90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규로 시판 전 신고(PMN)로도 불린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기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보다 쉽게 FDA 510(k) 기술문서 심사 및 시험, FDA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KTR의 기술문서

사전검토로 인허가 소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협약기관인 빈스탁 벤처스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 심사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어 SaMD, SiMD 등 의료 소프트웨어 수출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문서 심사기준 및 복잡한 보완 단계 등 FDA 승인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양 기관은 또 미국 FDA 510(k) 공동 세미나, 인증 동향 정보 교류 등 기술 규제 대응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미국은 의료기기 수출의 핵심 시장이지만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국내 첨단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KTR은 미국 FDA 지정 기관을 비롯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분야 현지 협력기관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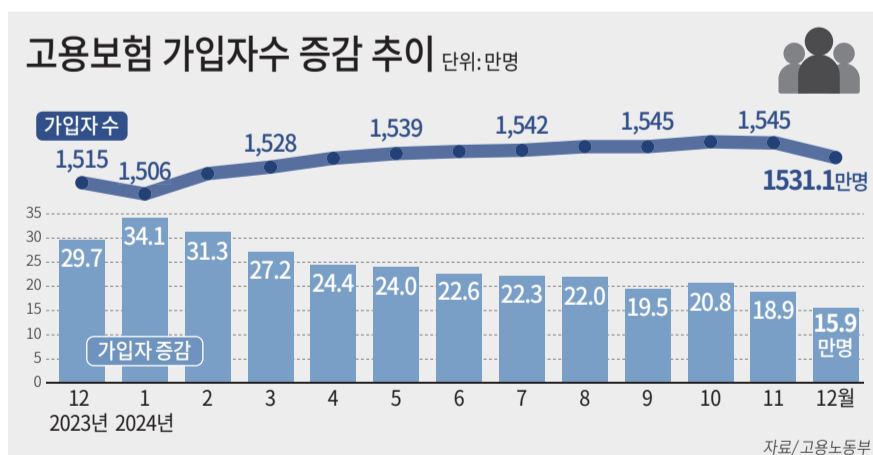
고용부, ‘행정 통계, 노동시장 동향’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8000명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5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34만10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축소되며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2월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하며 1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 ▲11월 1만7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

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9000명 증가한 53만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8032억원으로 5.9%(445억원) 증가했다.

전경희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현재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제한돼 있다. 그러나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연령대 취업자가 더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온라인 공동연구 ‘하이테크 서비스’ 오픈

KIAT 기업-연구자 지속공유 촉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연구자와 기업을 연결해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Hi-Tech), <https://hitech.ntb.kr>를 정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이테크는 기업과 연구자의 협력과 지속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이다. 만나서(Hi) 기술(Tech)을 논의하는 플랫폼이자, 첨단 기술(High Tech)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신진연구자들이나 새로운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한 기업들이 공동 연구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서로 연구 정보와 기술 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IAT는 연구 현장의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하이테크의 목표를 ‘기업과 연구자의 기술협력’으로 설정하고, 하이테크에서 연구자 검색, 공동연구 제안, 온라인 세미나, 기술교류, 연구자-기업 홍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구현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하이테크라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연구자와 기업 간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tok tok )



©후카후카스튜디오의 스마트톡 시리즈인 톡톡은 모두 수작업으로 마감한 제품입니다.  
가장자리에 등글림 작업을 하여 사용 시 날카로움이나 거슬림 없이  
조약돌처럼 매끈한 감촉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작 방법으로 거슬림을 없애고 입체감은 살린  
후카후카스튜디오만의 특별한 톡톡을 만나보세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 경북도, '민생안정' 중점 소비진작 등 4대 분야 지원 총력

중소·소상공인 경영자금 발행  
관계 기관과 수출기업 지원사업  
대중교통 확대 소비 활성화 도모

경상북도는 올해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에 두고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년 도정 방향 설명을 통해 "새해에도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 진작, 수출 활성화, 대중교통 등 4대 분야에 2025년 1분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힘쓴다. KB금융그룹과 저출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을 육아하는 소상공



경북도청 전경.

인의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것은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신규 보증 1조원 이상 규모 확대, 부실 또는 부실 징후 소상공인의 금융컨설팅 전담팀 신설, 2025 APEC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주시에 있는 음식 숙박, 도소매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1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 마련 등도와 관계기관이 빈틈없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진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를 끌어내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숙박과 관광 활성화까지도 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경북의 2025년은 2025 AP EC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이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통상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경북도와 수출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져야 지역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의 원활한 세계 진출을 도울 수 있다. 경북은 대구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구경북지원단과의 협력을 토대로 환변동 보험료 지원, 주요 글로벌 행사, FTA 활용 및 관세 행정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연결 확대에 따른 소비 유인과 시장 규모의 증대를 위해 대중교통지원 사업도 신속히 진행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와 환승 체계 강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통비 절감 효과에 더해 500만 시민의 상호 이동으로 소비 활성화와 시장 규모 증대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의 경제 여건이 국내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내실을 다지는데 경북도와 관계기관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포항시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상)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포항시는 핵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속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광양시

#### 동계 전지훈련 96개팀 유치

광양시가 동계 전지훈련팀의 잇따른 방문으로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겨울철에도 낮 기온이 영상에 머무는 온화한 기후,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덕분에 지난해 말 육상, 축구, 탁구, 수영 등 5개 종목에 96개 팀이 광양시 방문을 확정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광양시는 지난해 대비 15%가 늘어난 규모인 100개 팀 1500여명 유치를 목표로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18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해남군

#### 올해 해남맛집 6개소 선정

해남군이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을 '해남맛집'으로 선정했다.

올해 해남맛집 선정 음식점은 6개소로, 도화차(해남읍), 대동명품한우(북평면), 돌고래식당(삼산면), 궁전회관(황산면), 대선정가든(송지면), 땅골정민속칼국수(현산면) 등이다.

해남맛집은 지난해 진미식당과 서성식당, 성내식당 3개소가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6개소가 선정돼 총 9개소로 늘어났다.

군은 해남의 맛집들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인 '미미(味美)원정대'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전남 무인도 '줄고', 유인도 '늘고'

전남 섬, 2165개... 국내 61.3%  
2022년 말 비해 유인도 3개 늘어

국내 섬의 60%를 보유한 전남에서 무인도가 소폭 감소하고 유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전남의 섬(도서)은 2165개로, 국내 전체 3534개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유인도는 274개로 58%, 무인도는 1891개로 61%를 점유하고 있다. 2위 경남(552개)의 4배, 3위 충남(285개)의 8배고, 4위 인천(192개)보다 11배 많은 수치다.

전남 시·군별로는 신안이 유·무인도 모두 합쳐 859개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여수(353개), 완도(258개), 진도(253개), 고흥(230개) 순이고, 무인도만 놓고 보면 신안(782개), 여수

(307개), 진도(210개), 고흥(207개), 완도(204개) 순이다.

2022년말에 비해 유인도는 3개 증가했다. 여수 수항도는 거주자가 없어 무인도로 관리됐으나 개발 대상도 서로 지정되면서 유인도로 재정비됐고, 신안 울도와 노대도는 인구 유입으로 유인도로 바뀌게 됐다.

국토 먼섬도 전국 43개 중 25개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다. 시·군별로 신안 11개, 진도 6개, 영광 4개, 여수 3개, 완도 1개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문도,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군 25개 최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 이전 공공기관 상생·협력 논의

13개 공공기관, 기보 등과 간담회

부산시는 13일 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혁신도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을 비롯 부산혁신도시(동삼·문현·센텀혁신지구)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동삼·문현·센텀혁신지구가 함께 모여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혼란한 국정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부산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 금융, 영화·영상 등 부산의 핵심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삼혁신지구는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해양과학기

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다진다.

문현혁신지구는 디지털 금융 혁신 등 국내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센텀혁신지구는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문화적 브랜드 강화와 함께 영화·영상·게임 등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해 명실상부 세계적인 영상콘텐츠 거점으로 성장했다.

동삼혁신지구에서는 작년 연말 글로벌 해양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해 지역이 가진 최대 강점인 해양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이 협력해 우수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주시, 외국인 방문객 100만명 돌파

지난 1년간 117만 9094명 찾아

경주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외국인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총 117만 9094명이 경주를 찾아 외국인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특화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 기간 경주를 찾은 외국인 중 중국 등 동화권 방문객이 41만 1986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면서 주요 방문국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향리단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모습.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경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더 늘어나게 될지 주목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김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시책 추진

내수활성화 특별대책 등 운영

김해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1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 지점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앞당긴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시책으로 내수활성화 특별대책 운영, Speed Up 2025 민생지원 사업 조기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물가안정 종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김해사랑상품권을 7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

하고,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현금 유동성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 통합쇼핑몰인 김해온물, 공공배달앱 먹깨비, 우체국 쇼핑몰 김해시브랜드관에서 1월 집중빅세일을 진행한다.

한 달 정도 앞당겨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원 증가된 6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 경남도

#### 글래스돔과 경남지사 설립 '맞손'

경남도는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업체인 글래스돔과 경남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래스돔은 탄소 중립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으로, 영국 로이드인증권·법무법인 지평과 협업해 경남 제조기업이 수출 시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지사는 또, 같은 날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와 '경남 디지털기업 투자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 최대 83% 할인... e커머스, 뷰티·액세서리 물량 푼다

**컬리** 20일까지 '뷰티컬리페스타' 라 메르 등 460여개 브랜드 참여

**W컨셉** 28일까지 '설 선물대전' 설화수 등 선물전용 포장상품 준비

**롯데온** 크리스찬 디올 뷰티 맞손 '플라워 가든 메이크업 컬렉션' 선보



W컨셉의 설 선물대전 기획전 관련 포스터(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롯데온의 'NEW 디올 플라워 가든 메이크업 컬렉션' 관련 상품, 컬리의 새해 첫 '뷰티컬리페스타' 개최 관련 포스터. /각사

국내 e커머스 업계가 뷰티와 액세서리 제품군을 강화하며 새해 수요 공략에 나선다. 마트가 식품 위주의 새해 선물 상품에 주력하는 반면, e커머스 업체들은 뷰티와 액세서리 상품을 통해 새해 맞춤형 선물을 찾는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e커머스 업체들은 새해를 맞아 뷰티와 액세서리 상품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전을 열거나 명품 뷰티 신상품을 단독 론칭하며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컬리는 새해맞이 첫 뷰티 빅세일인 '뷰티컬리페스타'를 이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컬리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보습케

어, 안티에이징, 홈에스테틱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3500여 개 상품을 최대 83% 할인가에 선보인다. 달바, 라 메르, 라로슈포제 등 46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컬리는 이번 행사에서 미국 화장품 브랜드 크리니크의 'NEW 이븐베터 크리니컬 다크 스팟 클리어링 세럼'을 단독으로 선보인다. 구매하는 용

량에 따라 동일 라인의 로션을 증정품으로 제공한다는 게 컬리 측 설명이다.

컬리 신규 입점 브랜드 상품도 준비됐다. 테라비코스, 스와니코코, 탈리다 쿡 등 신규 브랜드가 페스타에 참여해 '히알루론산 3000 링클 앰플 패드', '뎀타이드 아이크림·페이스 크림'과 같은 주요 제품을 선보인다.

컬리 관계자는 "올해 첫 뷰티컬리페

스타는 보습케어와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인 크림, 앰플, 에센스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새해를 맞아 가족, 연인, 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은 상품들을 준비한 만큼 즐거운 쇼핑 경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W컨셉 역시 이달 28일까지 '설 선물대전'을 열고 뷰티 및 액세서리 상품을 위주로 맞춤형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W컨셉 측에 따르면, 뷰티와 액세서리 상품을 중심으로 설화수, 오니스트, 오블라 등 인기 브랜드 선물 전용 포장 상품을 준비했다. 이 외에도 3만~10만 원대의 선물세트를 제안하고, 명절 연휴 전까지 받을 수 있는 빠른 배송 상품 코너를 마련해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W컨셉 측 설명이다.

백세진 W컨셉 온사이트 플래닝팀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큐레이션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설에는 더블유컨셉이 제안하는 상품들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온은 명품 브랜드의 뷰티 컬렉션을 단독 론칭하며 새해맞이 뷰티 제품군 강화에 나섰다.

롯데온은 크리스찬 디올 뷰티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2025 NEW 디올 플라워 가든 메이크업 컬렉션'을 단독으로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파스텔 톤 색상을 중심으로 한 봄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컬렉션은 'NEW 디올쇼 5 컬러 - 936 스위트 부케', 'NEW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091 스위트 아이리스', 'NEW 루즈 블러쉬 - 831 피치 페탈', 'NEW 어딕트 립스틱 - 721 로즈 페탈' 총 4가지로 구성됐다.

롯데온 유나연 브랜드뷰티팀장은 "이번 NEW 디올 플라워 가든 메이크업 컬렉션뿐 아니라 추후에도 크리스찬 디올 뷰티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e커머스의 뷰티 및 액세서리 제품군 매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월 대비 6.3% 증가했으며, 화장품 역시 같은 기간 4%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설 명절 ‘홍삼톤’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0년 간 누적매출 1조 돌파  
축구선수 황희찬 '피로관리법' 유명



정관장 홍삼톤 골드. /KGC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에서 부동의 1위는 단연코 홍삼이 압도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홍삼의 기능성은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혈행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이다. 홍삼 하나만 섭취해도 다양한 기능성을 한 번에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성 덕분에 정관장 '홍삼톤'은 명절 시즌 가장 사랑받는 제품으로 손꼽힌다. 특히 가성비를 충족하는 가격 대비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1993년에 출시된 정관장 '홍삼톤'은 홍삼농축액에 다양한 생약재를 더한 복합 한방 브랜드로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피로가 누적된 현대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1년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한 해 100만 세트가 판매되는 정관장의 대표 스테디셀러로 떠올랐다. 최근 10년간 누적 매출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정관장 '홍삼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출 기록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더욱 부드러운 풍미로 업그레이드 된 '홍삼톤'과 '홍삼톤 골드'를 리뉴얼 출시했다. '홍삼톤 골드'는 홍삼농축액에 3가지 귀한 버섯과

10가지 전통 소재(부원료)를 더한 제품으로 오랜 시간 내려온 선조들의 지혜와 정관장의 정성을 조화롭게 더해 진한 홍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출원을 완료한 KGC인삼공사만의 'BT(Better Taste)공법'도 적용해 홍삼 함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홍삼 고유의 맛과 향을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전통적 처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한방' 디자인 콘셉트로 패키지도 새롭게 단장했다.

'홍삼톤'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희찬의 피로 관리법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5월 중학생때부터 체력관리를 위해 '홍삼톤'을 애용한 황희찬 선수를 멤버서더로 발탁해 '황희찬의 체력 관리 습관' 캠페인을 전개하며 피로 전문 브랜드로써 인지도를 더욱 강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KT&G, 우즈베크에 법인 '유라시아 공략'

에세 브랜드 총 2.7억 개비 판매

KT&G가 현지 사업 체제를 통한 본격적인 해외 시장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법인을 설립하고 유라시아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에 사무소를 설립한 KT&G는 글로벌 판매 1위 초슬림 담배 브랜드 '에세(ESSE)'의 현지 맞춤형 제품 수출로 시장을 개척해왔다.

이에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에세' 브랜드 7개 제품은 총 2.7억 개비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 중 KT&G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에세 체인

지'는 수출물량 중 64%를 차지하며 시장의 호응을 얻었다.

KT&G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의 법인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권역에서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이에 현지 인력 규모를 4배 이상 늘리고, 세부 영업망 구축으로 유통 커버리지를 확대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초슬림 담배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에세'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적극적인 시장 확장을 통해 매출 및 수익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 호주 대형마트에 비비고 만두 등 추가입점

CJ제일제당, IGA 매장서 6종 선보여  
현지 대형마트 4위, 1300개 매장 보유

CJ제일제당은 호주 대형마트 체인인 'IGA'에서 비비고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점 제품은 비비고 흡스타일 만두 3종(돼지고기, 돼지고기 & 김치, 야채)와 찐만두 2종(돼지고기, 돼지고기&김치), 치즈 핫도그 등 총 6종으로 이번달부터 순차적으로 IGA 매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IGA는 호주 4위 대형마트로 현지에 13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CJ제일제당이 기존에 입점한 1

위 마트 '울워스(Woolworths)', 2위 마트 '콜스(Coles)'를 합치면 호주 내 매장 수가 약 3300개에 가깝다. 이는 호주 주요 대형 유통업체(1위~4위) 매장 수의 80%가 넘어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비비고 K-푸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진 CJ제일제당 오세아니아법인은 "현지에서 주로 이용하는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판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호주 전역으로 촘촘한 판매망을 구축해 고객들이 어디에서나 비비고를 맛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G마켓 SSG닷컴 상품 연동판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SSG닷컴에 우수 상품을 연동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G마켓에 따르면, 이번 SSG닷컴과의 우수 상품 연동으로 판매 고객은 새로운 판매 채널 확보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상품 연동은 G마켓의 판매 관리 사이트인 이에스엠 플러스(ESM PLUS)를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다. G마켓에 등록된 상품이 그대로 SSG닷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상품 정보 수정 및 배송, 고객 문의 답변 등도 연동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G마켓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현대백 "정지선 회장님과 포토카드 '찰칵'"

사옥서 디지털 포토카드 부스 운영  
본사직원 800여명 사진촬영 참여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인공지능(AI) 기술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얼굴을 본떠 만든 가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포토카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포토카드 부스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1층에 마련됐으며 사옥 근무 전체 직원 800여 명이 사진 촬영에 참여했다.

특히, 현실 세계에 가상 이미지를 덧입히는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포토카드를 통해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실감나는 포즈로 촬영하고, 소장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높은 호응을 보였다는 게 현대백화점그룹 측 설명이다.

AR 포토카드 부스에는 텍스도 차림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AI로 구현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찍은 디지털 포토카드를 손에 들어보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으로 작은 폭죽을 든 정 회장이 사진 배경으로 연출돼, 직원들이 함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안재선 기자

# 대원제약, 매출 신기록 행진... 비만치료 등 지속가능성 강화

10개년 연간 성장률 12.7%  
해열제, 감기약 등 매출 견인  
비만 치료제 시장 도전장



펠루비에스 300정

대원제약이 매출 확대에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국산 신약부터 후속 파이프라인까지 확보해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 2024년 호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최대 매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 2024년 3분기 별도 기준 누적 실적으로 매출액은 4035억원, 영업이익은 3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5.5%, 영업이익은 91.8% 증가한 규모다.

대원제약은 앞서 지난 2023년 연간 매출액 5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간 매출액을 새롭게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개년 연간 성장률은 12.7%에 달한다는 것이 대원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성장세에 대해 대원제약은 자사 핵심 제품군의 매출 성과가 주요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대원제약은 '펠루비' 제품군을 확장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대원제약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펠루비에스정'은 기존해열진통소염제 '펠루비정'에 트로메타민염 성분을 추가한 전문의약품이다. 펠루비에스정은 기존 약물 대비 높은 용해도를 갖췄고, 위장장애 부작용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원제약은 일찍이 지난 2007년에 제12호 국산 신약으로 골관절염 진통제 '펠루비정'을 내놓은 후 적응증을 추가하고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자



진해거담제 '콜대원'

/대원제약

체 제품 개발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대원제약은 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 등 펠루비 시리즈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은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정', 투석지연제 '레나메진',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 '티지페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제품 모두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려 대원제약 매출 성장 기반이 됐다. 지난 2024년 3분기에도 신바로정, 레나메진, 티지페논 등은 이미 각각 누적 매출액 128억원, 126억원, 119억원 등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약품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인

진해거담제 '콜대원'도 대원제약의 매출을 견인하는 효자다. 2024년 3분기 기준 콜대원의 누적 매출액은 651억원으로 대원제약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대원제약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대원제약은 현재 고지혈증 신약 후보물질 DW-4301, 자궁내막증을 위한 DW-4902,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DW-4121 등의 후속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원제약은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도전장을 냈다. 경구용 신약 후보물질인 DW-4222의 경우 임상 2a상을 종료했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DW-1022는 피하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패치 제형으로 제형 및 투여경로를 변경한 것이다. 대원제약은 라파스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주사제 '위고비'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DW-1022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10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진행된 '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업무협약식'에서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 유한양행-박셀바이오 '박스루킨-15'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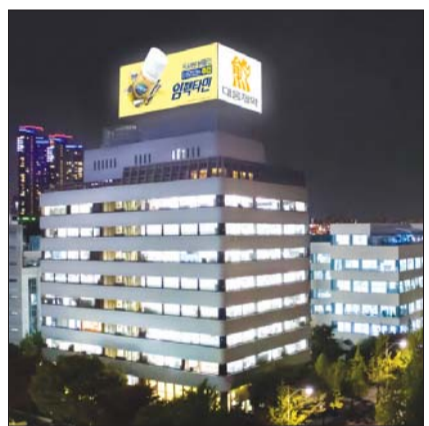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 15층 타운홀 미팅룸에서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회사 박셀바이오와 '박스루킨-15' 마케팅과 판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스루킨-15'는 박셀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반려견 전용 유선종양면역항암제로 지난 2024년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박스루킨-15를 정식 공급하면서 현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대웅, 'K-오가노이드 치료제' 글로벌 상용화 이끈다

산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 선정  
"국내 바이오 산업 자립도 높여겠다"



대웅제약 전경

대웅이 미니장기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과 대량 생산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에 뛰어든다.

대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에 재생의료 분야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대량 생산 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오가노이드란, 우리 몸 속 장기를 모방해 만든 3차원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이 오가노이드를 환자의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 재생에 사용하는 것이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다. 심장, 간, 신장 등 주요 장기나 조직의 기능이 손상

된 환자에게 적용돼 장기 재생을 돕고, 난치병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과제는 총 3개의 세부 과제로 나뉜다. 1세부 과제는 고품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 및 배양 용기 개발을 목표로 하며, 2세부 과제는 고품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생산 실시간 모니터링 및 품질평가용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3세부 과제는 고품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대량 생산 자동화 공정 기기 개발을 다룬다. 이 중 대웅은 1세부 주관기업의 총책임 기관이자, 3개 세부 과제 전체를 총괄한다.

대웅은 이번 과제의 총괄 기관으로서 1세부, 2세부, 3세부 연구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과제 수행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1세부 과제의 주관 기업으로서 대량 배양을 가능하게 하는 배양 용기, 고품질의 세포외 기질(ECM), 성장 인자, 첨가물 등 '핵심 소재' 개발을 목표로 성장 호르몬 등 단백질

및 화학 물질을 제공해 연구를 지원하고, 소재의 성능 평가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2세부·3세부 과제와 협력해 배양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특수 배지와 시약의 정밀 분배가 가능한 '자동 생산 공정'을 개발해,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으로 오가노이드 성장을 최적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유지민 대웅제약 바이오R&D센터장은 "대웅은 이번 과제를 통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의 글로벌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자립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

## LG생활건강 '팻-페밀리' 론칭

LG생활건강이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인 '팻-페밀리'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팻-페밀리 브랜드 첫 출시 제품은 LG생활건강의 59년 세제 제조 노하우를 담아 만든 피지 '팻-페밀리 세탁세제'와 '세탁조 클리너'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피지 '팻-페밀리 세탁세제'는 반려동물 털 부착과 냄새의 원인인 누적된 기름 왁스를 제거하는 제품이다. 세탁 한 번으로 반려동물 암모니아 냄새 99%, 털은 90%까지 제거 가능하다.

'피지 팻-페밀리 세탁조 클리너'는 세탁조에 남은 동물 털을 관리하는 제품이다. 단 1회 사용만으로 반려동물 털을 99% 용해하고, 물때와 다른 오염물질도 함께 청소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나라셀라, '안동소주' 글로벌 브랜드 육성

안동시 투자 MOU... 생산 인프라 확충  
니시주조, 프라팜 등 글로벌 기술 제휴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 나라셀라가 안동소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나라셀라는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안동소주의 지역기반 생산 및 사업 거점 확보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안동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기존 안동소주 기업과 차별화된 규모와 품질을 갖출 계획이다.

나라셀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설

비 구축을 위해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력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준비 중이다. 올 상반기 16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제1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2028년 착공 예정인 제2공장은 연간 450만 병 규모로 확장해 국내외 수요를 동시에 대응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본 유명 증류소 설비를 도입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 제휴와 주조법 혁신을 위해 일본 증류주 소주의 명가인 '니시주조'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프랑스 꼬냑 제조사 '프라팜'(Frapin), 영국의 위스키 제조사 '더레이크스'(The Lakes) 증류소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기술 제휴 확대를 준비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미약품·GC녹십자, 'LA-GLA' 국내 임상 (파브리병 치료제)

식약처 임상 1/2상 IND 승인

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브리병 신약개발이 글로벌 임상에 본격 돌입한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는 지난 9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파브리병 치료제 'LA-GLA' 임상 1/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파브리병 환자를 대상으로 'LA-GLA'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등을 평가한다.

양사는 앞서 지난 2024년 9월에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도 'LA-GLA' 임상 1/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아, 이번 국내 식약처 승인으로 다국가 임상연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게 됐다.

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희귀질환으로 '리소솜 축적질환(LSD)'의 일종이다. 현재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 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으로 주로 치료한다. 이러한 1세대 치료제는 2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수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기능 약화에 대한 유효성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공동 연구 중인 'LA-GLA'는 이러한 1세대 치료제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서정욱 대표이사 선임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정욱 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신임 대표이사는 1977년생으로 국내 제약 업계에서 폭넓은 경력을 갖춘 영업·마케팅 분야 전문가다.

서 신임 대표는 "고객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바탕으로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꼭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예탁원 KSD나눔재단,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 지사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원금 33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 윤이나 선수 '엑셀런스 프로그램' 후원
대한항공은 프로골퍼 윤이나 선수와 '엑셀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2025년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개최한다.



LS증권,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연탄나눔 봉사활동
LS증권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넥슨, '히어로 캠페인' 34억 기부

넥슨은 창립 30주년 기념 '넥슨 히어로 캠페인'에서 판매한 넥슨히어로 패키지 매출총액에 추가 후원금을 더해 총 34억원의 기부금을 넥슨재단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계, 설 명절 내수 활성화

현대차그룹, 협력사·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경영 앞장

협력사 납품대금 2兆 조기 지급
사업장별로 취약계층 봉사활동

현대자동차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상생 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 대금 2조446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9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글로벌,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트모터 등 주요 그룹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을 납품하는 6000여 협력사가 대상이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과 원부자재 대금 지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왼쪽사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에도 각각 2조 1447억원, 2조3843억원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협력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 소속 임직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사업장별로 주변 취약계층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임직원은 결연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시설 주변환경 정화, 식사 지원, 배식 봉사 등을 진행한다.

현대건설·현대트랜시스·현대오트모터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등 이웃들에 선물세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현대위아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저소득 장애인 가정 난방용품 지원 및 소외 계층 이동 지원을 위한 총 10대의 차량 기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그룹, 납품대금 1.5兆 조기 지급

LG전자 등 9개 계열사 참여

LG(회장 구광모·사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9개 계열사는 설 명절에 앞서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을 최대 22일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1조 5000억원이다.

LG 계열사들은 명절을 맞아 지역 이웃들에게 생활용품, 식료품 등 생필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 10곳에 총 3000kg의 김치를 기부하고,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소에도 총 1000kg의 김치를 따로 기부할 계획이다.

6863억 규모 납품대금 조기 지급

롯데(회장 신동빈·사진)가 설 명절을 맞아 11067개 중소 파트너사에 686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전 일시적 비용 증가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낄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함이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납품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9일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조기 지급 대상 계열사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26개 사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명절 연휴 이전에 파트너사들에게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차, '현대 N 버추얼 컵' 결승전 성료

폴란드 국적 도미니크 블레어 우승

현대자동차가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브랜드 'N' 알리기에 집중한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은 지난 11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심 레이싱' 형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4 현대 N 버추얼 컵' 결승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레이싱은 3차원 스캔 기술로

현실의 서킷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해 게임에서 현실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에서 2800여 명이 참가해 온라인 예선과 지역별 준결승전을 치렀다. 결승전에는 준결승전을 통과한 20명이 참가했다. 최종 우승자는 폴란드 국적의 도미니크 블레어다.

결승전 현장에는 약 850명이 방문했다. 현대 N은 시뮬레이터 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레이싱 계



잠실 숲 콜로세움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4 Hyundai N Virtual Cup' 결승전 현장

임에 등장하는 현대차 모델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결승전 생중계 방송은 현대 N 공식 유튜브 계정인 '현대 N 월드와이드'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양성운 기자

이영우 인하대 교수 교육부 장관상 수상

인하대학교는 최근 이영우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사진)가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지원 사업'에서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영우 교수는 인하대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단 부단장 역할을 맡으며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활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산업체와의 협력으로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최신 반도체 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에도 힘썼다.

인하대는 이번 수상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인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부장급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장 이항원
◆국가유신청 ▽과장급 △대변인 윤태정 △정책총괄과장 여성희 △역사유적정책과장 김명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이태호

부음

- ▲우병렬씨 별세, 김태영(경보계약 대표이사)씨 모친상 = 13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02-860-3500
▲서행자씨 별세, 박용현(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팀 전문위원)씨 모친상 = 13일, 광주 송정장례식장 2호, 발인 15일, 062-941-4400

- ▲김하영자씨 별세, 손영옥(국민일보 미술전문기자·손원일(자영업)씨 모친상 = 12일 오후 8시30분,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15일, 053-620-4647
▲장정임씨 별세, 나화엽(분당제생병원 원장)씨 모친상=13일,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15일 오전, 031-708-4444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 원광시편 원더라이프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 설날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다. 설이라 하면 보통 음력 설을 뜻하고 올해는 설날이 1월 말이라 양력 설과 음력 설을 1월에 함께 쇠게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은 음력 문화권 국가와 지역에서는 설날이 큰 명절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공식적으로 음력 설을 쇠지 않는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872년 1월 1일부터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만 쓰고 있어 음력 설을 쇠는 풍습은 오키나와 등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고 공식적으로는 양력 설만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음력 설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2월 31일 저녁에 메밀국수를 먹는 관습이 있다. 이를 토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해를 넘기는 메밀면’이다. 토시코시소바를 먹

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먼저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메밀면의 물성과 같이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잘 끊어지는 메밀면의 특성과 같이 지난해 악연과 악재를 해가 가기 전에 끊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자정이 지나기 전에 먹는다고 한다.

토시코시소바를 먹으며 TV를 켜면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NHK의 흥백가합전(紅白歌合戦)은 1951년 시작해서 지난해 75회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민 방송으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는 매년 일본에서 최우수 가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가수도 초청하고 있으며, 한국 출신 가수도 이전부터 상당수 출연하고 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일본의 모든 절과 신사에서 제야의 종을 108번 타종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던 백팔번뇌를 종소리 사라지게 해준다는 것으로 토시코시소바의 유래와도 일맥상통한다.

자정이 지나면 처음으로 하는 일반적인 인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축하합니다。(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이다. 젊은이들이나 SNS 등에서는 ‘아케오메(明

けおめ)’라고 축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연말부터 음력 설까지 약 한 달가량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일본은 자정을 기점으로 인사말이 달라져 1월 초에만 새해 인사를 한다.

자정을 넘겨 새해가 되면 일본인들은 절이나 신사에 참배하러 가기 위해 곧바로 외출 준비를 한다. 신년에 처음으로 사원에 방문해서 참배하는 것을 하츠모데(初詣 (はつもうで)) 혹은 하츠마이리(初参り (はつまいり))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원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규모가 작은 사원에도 자정부터 새해 첫날까지 연중 최고의 인파가 모인다. 이 참배의 목적은 지난해 무사히 보낸 것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평안하고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데 있다. 참배하면서 많은 사람이 재단 앞에 놓인 헌금함에 오 엔(五円; 오엔)짜리 동전을 던져 넣는데, 이는 신과 연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의 관공유인 “ご縁(고엔)があるように”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5엔 동전을 던진 후에 마음 가는 대로 더 많은 돈을 넣는데 이는 그 사원의 1년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이너 스티키 스팟’ 속 코스피



기지 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이너 스티키 스팟(In a sticky spot)’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넓은 5차선 도로가 갑자기 1차로로 좁아지면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이전처럼 빠르고 강한 성장이 어려운 복잡한 국면을 뜻한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지난해 ‘검은 월요일’ 이후 박스권에 갇혔던 코스피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고점인 2890대를 다시 돌파하기에는 여러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올해 코스피가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 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저가 매력이 부각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스피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코스피 전체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스피는 대형주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는 약 9.6% 하락했으며, 삼성전자는 32.23%의 낙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을 감안했을 때, 대장주의 추락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이너 스티키 스팟’에 갇혀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과거처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4만 10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현재는 20만원대에서 낙폭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달 10일 종가는 5만5300원으로 2023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7만8500원보다 낮으며, 52주 최고가인 8만7800원에 비해서도 약 37%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는 글로벌 경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복잡한 전환 국면에 놓여 있다.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자 이워질 때, 박스권을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4일 (음 12월 15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48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60년생 진실은 밝혀져 들수록 때가 묻는다. 72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니 각자 소지품 주의. 84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박아나다.
- 소**  37년생 우물에서 송능 찾지 말고 순서대로. 49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한다. 61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뒤통지 않는다. 73년생 슬픔도 곧 지나가거늘. 85년생 동시호반이라 흉내만 낸다고 다 미인이 아니다.
- 호랑이**  38년생 재혼을 한 지 오래 지나도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 50년생 식구가 많으니 돈 문제로 근심도 많이 생긴다. 62년생 최선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이다. 74년생 말보다 행동으로 시작. 86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 토끼**  39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51년생 지방으로 가는 이사는 지인의 조언을 수용하는 게 좋다. 63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5년생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람 풍하고 말해보라. 87년생 평 대신 닦이다.
- 용**  40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52년생 낫말은 새가 들고 밤말은 쥐가 들으니 주의. 64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조심. 76년생 낫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가. 88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는 것도.
- 뱀**  41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근심이 더 쌓인다. 53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65년생 신용은 만인이 걸어가야 할 지표일 것. 77년생 한번 레일을 벗어 나면 내 코가 석자가 된다. 89년생 종일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 말**  42년생 고토삼굴(狡兔三窟)이니 닥칠 위기를 미리 준비. 54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내게 된다. 66년생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78년생 누워서 떡 먹는다 것이 쉽지만은 않다. 90년생 물건을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했는데.
- 양**  43년생 조상님의 유산이 알아보지 못한 보배 화씨지(和氏之璧)이다. 55년생 배우자에게는 가리고 아옹하지 마라. 67년생 운명에 편승하는 것도 운의 흐름. 79년생 시덕 홍보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91년생 거울은 혼자 웃지 않으니 살피자.
- 원숭이**  44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다. 56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작은 성과는 눈에 안 들어온다. 68년생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자. 80년생 달걀로 바위 치기보다는 하나씩 일구어 나가도록. 92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에 신경 쓰자.
- 닭**  45년생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인생사. 57년생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얻게 된다. 69년생 가진 돈을 점검하고 지출을. 81년생 성공 뒤에는 다들 고요하는 노력이 동반. 93년생 새로운 사업은 달면 삼고 쓰면 내뱉는 결과를 낳는다.
- 개**  46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58년생 자신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70년생 익숙한 일도 신중하게 대하라. 82년생 불명하다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된다. 94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 돼지**  47년생 반려 아기를 키우려면 정성과 돈의 지출이 늘어나니. 59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1년생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다. 83년생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도시락은 싸가도록. 95년생 이성으로 상사병(相思病)이 생길 수 있다.



## 김상회의四季 단정의 경계선

사람들은 상(想)에 지배받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인식이 한 번 각인 되면 계속 그 생각의 노예가 된다. 요즘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경전 언어는 석가모니부처님 당시 그 주요 활동무대였던 동북 인도의 일반 대중어였던 팔리어로 설해졌다고 한다. 그 팔리어로 산나(sanna)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풀 것이 상(想)이다. 사실 세상은 온통 산나 투성이이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예단하기에 그에 따른 행동과 말이 나오고 갈등과 번뇌가 생기고 그래서 세상은 고통의 바다가 된다. 공황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 생각과 다른 타인들로부터의 견해나 악성 댓글로 인해 마음이 묶여버렸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이 힘들면 몸은 그야말로 로봇처럼 조종하는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생각으로 그릇된 견해로 단정을 내리게 되면 이런 괴로움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단정의 오류는 반드시 일상을 사는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집적하여 가공하고 판단하는 과정에도 있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사주 감명이야말로 정성적 통찰이 요구되는 인문화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생년월일 여덟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천간과 지지의 각각의 기본적 성질이 있으나, 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대운과 세운을 만나서 반응하며 펼쳐지는 모양새는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과 같다. 마치 산소와 수소라는 각각의 원소가 따로 있을 때는 그저 하나의 원소적 특질만 있지만, 두 원소가 만나게 되면 물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충(衝)이라 해서 무조건 꺼려야 할 다 같은 충이 아니고 합(合)이라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단정의 위험을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분야인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도쿠** **컬러 �도쿠 110**

**할인도서**

9	8	9	2	8	1	1	7	6
6	7	1	9	1	6	9	2	8
1	2	7	6	8	5	1	9	6
8	6	9	1	7	9	2	6	1
7	1	2	8	9	6	1	2	9
1	9	6	6	2	1	8	9	7
9	6	1	7	6	2	9	8	1
6	9	1	2	9	1	8	7	1
2	1	8	1	9	7	6	9	2

9	1	1	2	6	2	8	6	9	7
1	9	6	8	1	9	7	6	2	1
6	8	7	6	9	2	1	9	1	1
1	7	9	1	6	8	1	8	9	1
1	2	9	6	8	1	9	7	6	2
8	6	9	7	1	6	2	1	9	1
6	1	8	9	7	1	9	2	6	1
7	9	1	2	8	9	6	2	8	1
9	6	2	1	9	7	8	6	2	1

# 정근식 “교육감 자사고 권한 약화 우려… 개정안 재고해야”

〈서울시교육감〉

### 교육부, 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삭제 논란 서울교육청 “위임 한계 무시” 반발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와 관련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3개 항목을 삭제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했던 교육청의 권한이 없어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으며,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

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상고는 하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당시 소송 2심 판결 이후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판단하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같은 달 25일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을 두고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

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라며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는 부정 회계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이 없는데 시행령에는 담겨있어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어르신 일자리 9만 명 시대… 질적 개선 과제

### 서울시, 참가자 수 9만 명 돌파 단순 노동에 그쳐 근로 만족도 낮아 양적 성장 이어 질적 변화 모색해야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참여자수가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저임금·단기·단순 노동에 그쳐 공공 일자리 확대와 동시에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가자수는 지난 2021년 8만 4895명에서 2022년 8만 8043명, 2023년 8만 8745명, 작년 9월 기준 9만 6546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사업단)으로 나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익 활동형은 어르신이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 활동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1인당 활동비로 월 29만원(30시간)을, 부대 경비로 연간 18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기간은 평균 11개월이며 안부를 묻거나 말벗이 돼 주는 ‘노노(老老) 케어, 학교 급식 및 스쿨존 안전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경력·역량 활용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서

울시민이면 10개월간 참여 가능하다. 1인당 활동비로 월 63만 4000원(60시간)을, 부대 경비로 연간 212만 4000원을 지원한다. 식품·공산품 제조, 카페·택배 등의 업무를 맡는 시장형의 경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인당 연간 267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 시민에게 민간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내용으로 실시되며, 부대 경비로 1인당 연간 15만원이 투입된다.

이수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공공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이나, 고령자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한 질적 고도화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어르신 일자리가 주로 단순 노무직으로 구성돼 직무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낮은 임금 수준과 반복적인 일자리 수행으로 근로 의욕과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기자 hjk1@

## 고양시, 2030년까지 30만개 일자리 창출

###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규모 개발

고양시가 2030년까지 총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30만 개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양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리브랜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그동안 주거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작은 충격에도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스타벅스,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처럼 고양시도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를 이루기 위한 리브랜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2030년까지 1,000개의 벤처기업과 약 1만 2,000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

영상밸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약 5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히 “일산테크노밸리와 제2자유로 지하도로를 연결하고, 60만 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은 상반신 청을 목표로, 총 9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도 중요한 발전 전략으로 언급됐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교통망을 확장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의 건설과 함께 주요 도로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국내외 대형 국제행사 및 관광형 일자리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고양시 내 개최 종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중장년 취업 위한 ‘직업 훈련·디지털 교육’ 참여자 모집

### 서울시, AI·빅데이터 등 교육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업 훈련’과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4050 직업 훈련은 중장년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약국 사무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승강기 유지 보수 인력’을 포함 14개 과정을 시작으로 총 132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서류와 면접 등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되면 권역별 5개 캠퍼스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AI·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워치 등 최신 기술 분야를 다루며,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30개 과정·755명을 시작으로, 연간 127개 과정·총 3070명을 차례대로 모집한다.

4050 직업 훈련과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취업에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50+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1월 14일 (화)  
음력 : 12월 15일

수도권 날씨  
1 ~ 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46    해질 / 17:46

연천 -12/5

동두천 -12/5

가평 -12/6

파주 -12/4

서울 -6/5

양평 -8/6

인천 -4/3

수원 -5/4

용인 -5/4

평택 -8/5

백령도 0/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中 2024년 수출 증가율 7.1%, 무역흑자 1400조 원… 트럼프 앞두고 밀어내기?  
▲‘방한’ 이과야 日외무상, 현충원 참배… 방명록엔 서명 /사진 뉴스1

▲中 왕이 이르면 내달 방한… 정부 “고위급 교류 긴밀 소통중”  
▲美·日·필리핀, 온라인 정상회담… “中 염두 해 양안보 등 협력 지속”

▲LA산불 사망자 24명… 당국, 수감자까지 동원해 진화 총력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로고 발표



e커머스  
뷰티·액세서리  
물량 펀다  
L1



Life

대원제약  
매출 신기록  
연구개발 속도  
L2



# 지역인재 키우고, 스타트업 지원...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르노코리아

한동안 신차 부재로 판매 부진에 시달렸던 르노코리아가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혁신과 전략 변화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 호흡한 덕분이다. 특히 부산 공장 투자 확대 및 청년 지원을 통해 얼어붙은 청년 취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국내 대학,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미래 인재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 ◆지역 사회 긴밀한 협력...경제 활성화·고용 창출

부산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3월 부산시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내연차 중심의 생산 체계에서 하이브리드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를 통해 부산 지역 내 청년 고용 및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부산공장에 투자 비용만 1180억원, 200명의 신규 인력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개발 및 생산까지 확정되면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협약을 통해 직접 생산 유발 효과 12조원, 간접 생산 유발 효과 30조원, 간접 고용 효과 9만명 등 대규모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당시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부산에 위치한 경쟁력 있는 차량 부품 업체와 우수한 연구개발(R&D) 기반 시설은 부산에 신차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며 "르노 본사와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부산공장 생산을 위한 협상이 성공하면 '오로라 프로젝트' 7000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르노코리아는 지역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3년 부산시 및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등 지역 기관과 '부산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동아대학교와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부산 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상호지원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르노코리아와 동아대는 ▲체험형 현장실습(인턴)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시행 ▲협약기관 간 공동 정책 연구, 정보공유, 인재양성 상호지원 체계



#### 2 부산대학교-르노코리아 산학협력

시: 2024.11.19. (화) 오후 4시 30분 장소: 부산대학교 본부



1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2 르노코리아 제조본부 이해진 본부장(오른쪽)과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3 르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옹진시 르노테크노로지코리아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피치 데이' 최종 후보에 오른 스타트업들에 대한 기술 평가와 시상을 진행했다.



3 르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옹진시 르노테크노로지코리아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피치 데이' 최종 후보에 오른 스타트업들에 대한 기술 평가와 시상을 진행했다. /르노코리아

#### 부산공장에 생산기지 구축... 투자 늘려 차세대 전기차 모델 개발·생산 계획 직·간접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부산대·동아대와 인재양성 업무협약 산학협력 협약 맺고 상호지원체계 구축

#### 인프라 부족한 곳에 임대 차량 지원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협업 기회

구축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등의 지원 및 협동 등 적극적인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대학교와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및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 ◆교통취약지역 근무 청년에 차량 지원

르노코리아는 부산 내 교통취약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무 청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부산청춘기쁨카 지원 사업에 '뉴 르노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를 지원하며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청춘기쁨카 지원 사업은 도시철도 노선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부산시 강서구 및 기장군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의 통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2년간 차량과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년 이내에 부산시 강서구와 기장군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21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시 거주 청년이다.

실제 이용자 조사 결과,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지난 2020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청춘기쁨카 지원사업 선정자 19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과 조사에 따르면 청춘기쁨카가 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6%에 달했으며 주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약 82%로 나타났다.

또 선정 인원 중 약 90%가 현재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6~29세가 약 52%, 지역별로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서부산권 지역 재직자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글로벌 역량 총동원해 유망 스타트업 육성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2년간 르노그룹,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를 개최하고, 미래차 기술 협업을 위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 르노코리아는 지난 2023년 개최된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에서 우수스타트업

으로 선정된 '드림에이스'와 기술 협업을 진행하며 신차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함께 개발한 바 있다. 우수 스타트업과 협업으로 개발된 그랑 콜레오스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 UI와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기능으로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2024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는 르노코리아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하는 국내 트랙, 르노 그룹과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하는 글로벌 트랙으로 진행됐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 카 익스피리언스', 게임 콘텐츠 또는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인 카 게이밍' 2개 분야로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협업 계약을 통해 르노코리아의 차기 신차에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선정 기업은 기술 검증(PoC) 및 르노코리아 유관 부서와 비즈니스 미팅, 현업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르노코리아가 준비 중인 미래차에 적용할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발굴하고 협업을 진행하며 직간접적 고용 창출 및 경제 효과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단 123명 선수촌 입촌  
▲7년 만에 다시 호흡 맞춘 서승재-김원호, 말레 이시아 오픈 우승 /사진 뉴시스

▲유승민, 선수 바꿔치기 의혹 제기 분개... "강태선·강신욱 후보 사과해야"  
▲펜싱 박상원, 튀니스 그랑프리서 국제대회 개인전 첫 금메달

▲박항서 감독, 전북 명예홍보대사로 위촉... "전북 발전에 노력"  
▲"오타니 이길 사람은 안우진뿐"... 류현진-김광현이 꼽은 투수, 日도 주목